

2014년 1차 사학진흥포럼

대학생 교육환경,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학생 안전과 기숙사를 중심으로 -



일시 2014년 7월 10일(목) 14:00~16:3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B1층)

주최  국회의원 이군현 ·  한국사학진흥재단

후원 (사)한국교육시설학회, 전국대학교생활관관리자협의회

개 회 사



이 원 희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군현 의원님을 포함한 내·외빈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2014년 1차 사학진흥포럼, 「대학생 교육환경,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세월호 사건과 더불어 나라 안팎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적 안전의식 고취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학생 안전 구축’이 최우선과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거주시설인 기숙사를 포함한 교육시설·환경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 안전사고 예방·대처를 위한 국가, 사회, 학교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재단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금을 활용한 행복기숙사지원사업을 2012년도부터 추진하여 현재 월 21만원 수준으로 기숙사비를 인하하였으며, 앞으로 기숙사가 단순 주거시설이 아니라 인성교육의 장, 미래 창의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숙형 대학(RC)의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수준의 기숙사비보다 낮은 기숙사 제공을 위한 재단의 직영기숙사 건립·운영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기숙사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 포럼에서는 대학 구성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시설 안전관리의 현 실태와 안전사고 예방·관리 방안을 살펴보고, 대학생 주거 복지 실현 및 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재단의 행복기숙사지원사업 다각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포럼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대학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7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 원 희

인사말



이 군 현
통영·고성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군현입니다.

오늘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4년 1차 사학진흥포럼, 「대학생 교육환경,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과 포럼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 대학 교육시설 및 기숙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침통함에 빠지고 국가적인 안전의식 부재와 부실한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안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 마련에 대한 요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사고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더불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기숙사의 운영 방식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기숙사 운영 방식의 다양화와 선진화된 제도 도입 등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심인 대학생들이 안심하고 학문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및 대학기숙사의 다각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정책·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관련 정책에 대한 가감 없는 비판과 대안 제시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7

통영·고성 국회의원 **이 군 현**

축 사



설 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설훈입니다.

예년에 비해 늦게 찾아온 장마 덕에 7월 한여름의 더위가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대학 내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과 대학기숙사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4년 1차 사학진흥포럼>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최근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우리 사회의 위기의식이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발생하여 지금까지도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월호 침몰사고는 국가적 안전의식 부재와 위기대응능력 부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었습니다.

잇을 만하면 발생하는 안전 관련 대형 사고의 희생자가 주로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 및 노약자라는 점에서,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사회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많은 인재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대학의 교육·주거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이들의 주거공간 안정화를 위한 국가·사회적 연구와 대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주로 학계를 비롯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와 정부 또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 교육시설 안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교육시설 안전관리의 실태와 안전사고 예방·관리 방안, 그리고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토론회 개최에 힘써주신 이군현의원님,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원희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설 훈

프로그램

등록

13:30~14:00 행사등록 및 내빈 접견

I 부

사회 : 우 남 규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경영TF팀장

14:00~14:20

국민의례
개회사 이 원 희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인사말 이 군 현 국회의원

II 부

사회 : 박 정 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4:20~15:20

주제발표 I
「대학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 대책 :
기숙사 시설을 중심으로」
이 화 룡 한국교육시설학회장, 공주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II
「교육과 주거의 통합방안 모색:기숙형 대학(RC)」
송 혁 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III
「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공공기금 직영기숙사 추진방안」
박 현 일 경희대학교 교수

15:20~15:30

휴식시간

15:30~16:12

주제발표 I 지정토론
황 희 준 한국교육시설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교수
박 미 랑 한남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II 지정토론
강 대 진 전국대학교생활관관리자협의회 서울지부장
전 향 록 한동대학교 생활관자치회장

주제발표 III 지정토론
이 정 규 배재대학교 교수
김 준 석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16:12~16:27

질의 · 응답

마무리

사회 : 우 남 규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경영TF팀장

16:27~16:30

폐회 및 마무리

대학생 교육환경,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학생 안전과 기숙사를 중심으로 -

주제발표 I

**대학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 대책
: 기숙사 시설을 중심으로**

이화룡 한국교육시설학회장, 공주대학교 교수 9

주제발표 II

교육과 주거의 통합방안 모색 : 기숙형 대학(RC)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31

주제발표 III

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공공기금 직영기숙사 추진방안

박원일 경희대학교 교수 67

주제발표 I 지정토론

황희준 한국교육시설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교수 89

박미량 한남대학교 교수 95

주제발표 II 지정토론

강대진 전국대학교생활관관리자협의회 서울지부장 101

전향록 한동대학교 생활관자치회장 109

주제발표 III 지정토론

이정규 배재대학교 교수 115

김준석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127



주제발표 I

대학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 대책 : 기숙사 시설을 중심으로

이화룡 한국교육시설학회장, 공주대학교 교수

주제발표Ⅰ

대학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 대책 : 기숙사 시설을 중심으로

이화룡 한국교육시설학회장, 공주대학교 교수

최근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설물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연구실험실 안전, 감염병, 식중독, 학생회 활동 안전, 사이버, 성폭력, 방사능 등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본 글은 대학의 여러 안전 문제 중 시설물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등교육의 변화에 따른 대학시설의 변화와 경향(trend)을 살펴본 후 시설물 안전에 대한 몇 가지 대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어서 대학시설 중 기숙사 시설의 안전대책들을 좀 더 각론적으로 살펴보고 끝으로 기숙사 화재 예방 및 피난을 위해 관련 기준의 개정 혹은 보완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대학 교육환경 변화와 시설의 변화

가. 고등학교의 환경 변화

(1) 지식 창출기관으로서 대학 역할의 중요성 부각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사회로서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원천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대학을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사회제도가 아니라 지식 자체를 생산·전달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사회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다.¹⁾ 지식기반사회가 대학에 대해 갖는 이러한 전략적 역할 때문

1) Duderstadt, J.J.(2004), A University for the 21st Century,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고등교육 시스템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즉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 중국의 중점대학(重點大學) 등 대학구조 개혁을 통한 대학경쟁력의 확보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학 특성화, 국립대 법인화, 대학 정보공시제 등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대학교육 환경변화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학입학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이다. 대학학령인구인 18세 인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일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201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60만명대에서 50만명대로, 2027년에는 40만명대로, 2050년에는 30만명대로 감소하는 등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입학자원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에는 대입정원과 입학자원 간 초과정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3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총 대입정원은 55만 9,036명이다. 그리고 2013년 학령인구, 즉 입학자원은 63만 1,835명으로 아직까지 입학자원이 대입정원보다 많다. 그러나 2013년의 대입정원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시 2018년에 처음으로 입학자원이 대입정원에 미달하게 되며, 즉 2018년 입학자원은 54만 9,890명으로 대입정원에 9,146명 부족하게 된다.

(3) 정보화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수업, 대학 운영, 교수방법 등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화와 기술공학적 개념을 교수와 학습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대학에서의 노동집약적 교수와 연구, 일방적인 의사소통에서 기술집약적 교수와 연구로 초공간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며, 기존의 캠퍼스 중심의 대학관의 변화와 더불어 재택학습의 확산 등 대체 학습이 대두되고 있다.

나. 대학교육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시설의 대응

(1) 시설 변화에 미치는 대학교육의 변화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1) 대학간 구조조정, 2) 대학내 단과대학과 유사학과 통합,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3) 특성화 분야로의 학내 인적 및 시설자원의 집중 등을 통한 대학특성화 가속화, 4) 대학내 학과 신설 및 폐지 등 학사구조개편의 가속화, 5) 대학간 연합 및 협력 활동 강화, 6) 전통적인 출석 수업 외에 재택수업 등 대체학습 활동의 활성화, 7)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사회의 도래, 8) 대학교육 모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 등의 대학교육 변화가 앞으로 대학시설의 변화에 미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2) 대학교육 변화에 따른 시설의 대응

대학교육 변화에 따른 대학시설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학입학 학령인구수 급속한 감소, 대학간 통·폐합 가속화에 따른 잉여 대학시설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 동일권역 내 대학간 대학시설의 공동 활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되며 이를 위한 대학간 혹은 산학간 협력체제 구축과 대학시설의 개방화가 요구된다.
-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강구가 필요하다.
-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경우 다른 시설로의 가변성과 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학교육과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학생들의 교과과정 이수 흐름이 점점 복잡해지므로 종래의 학생 1인당 면적기준보다는 F.T.F(Full time equivalent) 방법을 활용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급변하는 국내외 연구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시설 확충이 시급하며 이에 따른 시설과 설비 기준이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 정보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도서관 구축 및 학습환경의 멀티미디어 교육지원 이 요구되며 궁극적으로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21세기는 한 대학이 모든 시설과 모든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균형이 있는 학문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므로 대학간 시설공유, 인적공유, 교과과정의 상호 보완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한다.

다. 최근 대학시설의 새로운 경향

(1) 일상공간의 중요성 강조

대학시설은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활동 공간이자 생활공간이다. 인지학적 인간학은 형태(Form)·삶(Leben)·의식(Bewußtsein)이라는 이 삼체성(die Dreiheit)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들은 육체·영혼·정신으로 구성되는 인간의 삼지적 구조(Dreigliederung)를 통해 경험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장으로서의 건축은 우리의 총체적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대학시설은 학생들이 살아가는 장소이며,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되어질 때만이 그들의 타고난 개성을 밖으로 표출하게 되고 이를 계발시켜 조화로운 인간으로 교육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시설은 최근까지도 학습 및 연구 공간으로만 인식되어져 교수·학습의 기능을 충족시키는데 급급한 나머지 생활환경 측면은 도외시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시설의 안전과 위생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생활 장소로서의 학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즉 대학시설이 학생들의 쾌적하고 진정한 일상생활의 장(場)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며, 둘째로 학생들에게 해롭지 않는 환경 셋째, 쾌적한 거주 환경 그리고 위생적인 장소가 되어야한다.

특히 본 포럼의 주제인 기숙사시설은 대학시설의 주요한 일상 공간의 하나이며 학생들의 경제·복지적 편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써 대학은 반드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원거리 통학학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숙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따라서 대학은 적정한 규모의 기숙사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으로 건립하여 이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 연구시설 비중의 증가

대학시설은 주로 교육기본시설, 연구시설, 지원시설, 기타시설, 부속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진

다. 대학들의 강의실 및 실험실 등 교수·학습공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²⁾ 최근 대학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교육공간 중 연구시설의 필요성이 높게 대두되고 있다. 연구시설은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실, 연구소 등이 포함되며, 각 대학에서는 국책사업 유치나 산학연구활동 등의 강화를 위해 연구소와 교수 개별 연구소를 신축 및 개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 최근 대학시설 중 교육기본시설 보다는 연구소와 사업단 등의 운영을 위한 공간 소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수도권 혹은 대규모 학교 위주로 설립되고 있어 대학간 연구 환경과 산학 협력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표 1〉 국립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 1인당 연구시설 평균 확보 면적

구분	구성원 1인당 평균 시설 확보면적			
	교수1인당 연구시설	교수1인당 연구용실험실	대학원생1인당 대학원실	교수 1인당 연구소
전체평균	32.0	20.1	1.2	7.7
교대 평균	4.6	0.3	—	0.8
거점대 평균	53.9	32.9	1.8	15.6
지역중심평균	41.2	29.3	1.9	7.5
특수목적대 평균	22.7	8.9	0.9	10.0

- 일부 대학에서는 연구시설 건립을 시급히 추진하다보니 가설 건물에 신축하거나 기존 교육시설을 개조하여 궁여지책으로 연구실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실 안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3) 대학시설의 개방화

대학시설의 개방화는 대학설립 운영규정의 개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예전 법령에서는 교지 내에 설립주체 외의 자가 건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2005년 교육부는 사립대학 내 기업이나 개인도 기숙사나 식당, 체육시설, 문화센터 및 주차장 등 교육과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

2) 2013년도 대학시설의 교사확보율 평균은 126.8%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상회하고 있음. 설립별 교사확보율 현황을 보면, 국·공립대의 확보율은 142.3%, 사립대는 121.8%로 조사되어 국공립대학의 교사확보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교연 통계, 대학교육연구원, 2013.11.29. 참조)

투자기관, 사업체, 금융기관 및 개인 등이 대학부지 내에 건축물을 짓고 소유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캠퍼스 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나 체육관 등 복지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에 의한 시설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학시설의 개방화는 지역사회로의 시설개방, 산학협력 시설로의 활용, 대학간 시설 공유, 대학시설 사업의 민간자본의 참여 등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 **지역사회로의 시설 개방** : 대학시설은 예전의 상아탑 내에서 교수 및 연구활동만을 하는 공간이 아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협력 활동은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캠퍼스 내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소비하는 시설이 다수 건립되고 있다. 국립대학 중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과 사립대학 중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 내에 들어선 이화캠퍼스복합단지(Ewha Campus Complex 이하ECC) 등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새롭게 건립되고 있는 복합시설에는 영화관, 공연극장, 세미나실, 도서관, 근린상가 등을 두어 지역 혹은 도시민에게 개방하고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 **산학협력 시설로의 활용** : 최근 대학캠퍼스 내 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관 내에 가족 기업, 산학협력 업체들이 속속 입주하여 대학 학문의 실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동경대 가시와(柏) 캠퍼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캠퍼스는 1998년 신설되었으며, 프론티어 사이언스 대학원(GSFS : Graduate School for Frontier Science)과 ‘학제간 연구활동의 융합(學融合)’을 기치로 내건 ‘열린 대학원’으로 이 캠퍼스에는 다른 대학 대학원·연구소는 물론 국공립·민간연구소 및 기업과 연계, 기초과학·생명과학·환경학·정보생명공학의 융합형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대학간 시설 공유** : 대학공간의 효율적 활용, 공동 연구과제 추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협력대학간 시설공유, 인적공유, 교과과정의 상호 보완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연계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대학시설은 공동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대학시설 사업의 민간 자본의 참여** : 대학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BTL (Build-Transfer-Lease) 사업방식과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방식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립대학의 경우 BTL 사업 방식이 주로 채택되고 있다.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의 경우 BTO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기숙사의 경우, 국립대학교들은 대체로 BTL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립대학은 BTO방식(전국대, 성균관대, 서강대, 고려대 기숙사)과 BTL방식(연세대 기숙사)을 혼용하고 있다. BTO는 민간이 국가나 법인에 제안하여 채택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하여 그 비용과 이익을 회수한 후 국가에 그 시설이 귀속되나, BTL은 민간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설한 후 바로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에 모든 관리 등을 귀속키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이 받는 방식이다. 그리고 기존의 완공 후 시설관리는 대학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반면 이 두 방식 모두 시설 관리 방식은 SPC가 별도로 시설관리를 하게 되는 차이점이 있다.

이처럼 대학시설은 교수와 학생들의 학습교육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시설로, 산업체를 위한 산학연센터, 창업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협력대학간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벽으로 둘러싼 예전의 캠퍼스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유재산에서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설립 투자방식 역시 민간자본에 의한 거대 시설의 확보가 이루어져, 대학시설관리 역시 시설의 자산(assert management)개념에서 관리(facility management)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라. 대학시설 변화와 안전 대책

각 대학에서는 교수·학습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기숙사를 비롯한 생활공간의 확충 그리고 연구공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시설 관리 역시 예전의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시설물의 방법, 위생, 방사능, 재난 등의 예방과 점검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연구실 안전과 방법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연구시설의 안전(safety) 대책

대학 연구시설의 다양화, 다품종화, 고기술화 되어짐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 수만 해도 5만 4,000개소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06년『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도’ 등 각종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각 대학 역시 연구시설 안전 책임자를 임명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보완책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자체예산에서 확보하거나 산단 등 외부 연구비 수주시 인건비의 1~2% 범위 내에서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대학 자체 예산 확보 기준이 없어 이의 예산 반영이 쉽지 않다. 따라서 연구실 면적당 단위 안전 관리 비용 기준을 대학규모별로 마

련하여 전 대학이 예산 수립 시 당연히 계상되는 비용으로 인식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둘째, 안전점검은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진단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업체가 일정 기준(인원, 장비)만 갖추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질(質) 저하가 우려되므로, 미래 창조과학부 등에서 점검업체의 질적 수준을 점검 및 관리하여 수준 높고 실질적인 점검과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 활동종사자의 교육·훈련은 신규 종사자 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연 12시간), 특별안전교육·훈련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이버 교육이 가능한 정기교육을 현장 교육으로 의무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하고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넷째, 캠퍼스 내 연구실험실을 임시 가설 건물로 대체 사용하는 경우와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 연구시설들은 특별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안전사고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방관과 무관심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안전 관련 제도나 정책도 중요하지만 연구원 개개인의 자율적 안전 의식을 높이고 예방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현장 안전관리의 내실화에 보다 많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시설 보안(security) 대책

시설 안전은 시설물 안전(safety)과 보안상 안전(security)을 모두 포함한다. 최근 대학시설 개방화는 시설 보안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미 대학시설은 도시민의 공공 공간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으며 대학 경영자 역시 도시민의 대학시설 활용을 대학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시설 개방은 역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학생들에게 폭력, 성범죄, 무단 침입, 도난 등 여러 가지 범죄에 취약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시설을 폐쇄하고 “접근통제” 방법으로 시설관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범죄예방교육, CCTV 설치, SMS 알림서비스, 경비강화, 자체 방범대 구성, 출입통제 시설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부분적인 시설 방법 대책도 필수적이지만 최근 많은 공공시설 설계에 적용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을 대학 시설 전반에 걸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으로 범죄의 두려움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이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범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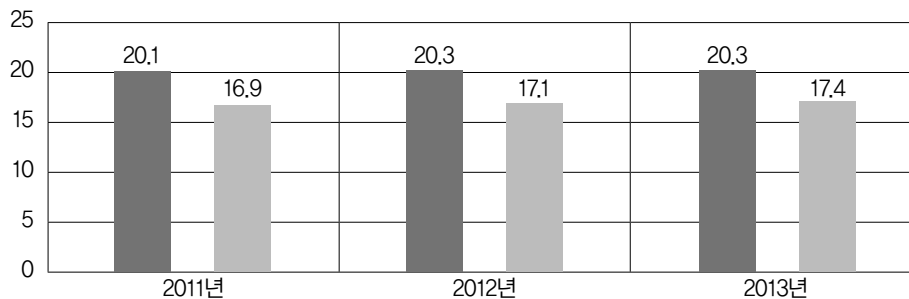
는 반사회적 행위가 “범죄자와 피해자, 취약한 공간구조”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발생한다는 가설에 입각하여 범죄유발 요인(기회적 요인)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범죄예방을 위해서 기계적, 인적 경비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건축 설계 단계에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기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범죄 취약요인들을 통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범죄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³⁾

2 대학기숙사 시설의 안전 대책

가. 대학기숙사 수용률 현황

최근 3년간 전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큰 변화 없이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대 기숙사 수용률은 2011년 20.1%, 2012년 20.3%, 2013년 20.3%이며,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은 2011년 16.9%, 2012년 17.1%, 2013년 17.4%에 이른다. 종전 규정인「대학설치기준령」이 명시한 바 있는 ‘총 학생정원의 15% 이상’이라는 수용률 기준에 비춰보면,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최소한의 기숙사는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림 1〉 최근 3년간 설립별 기숙사 수용률 변동



하지만 여전히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기숙사 장기 수용률 목표는 30.0%로 2017년까지 25.2%를 계획하고 있다. 사립대학 역시 BTO, BTL 사업 방식으로 기숙사 확충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권제중, 학교 안전과 담장 허물기,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014, 5월호, p.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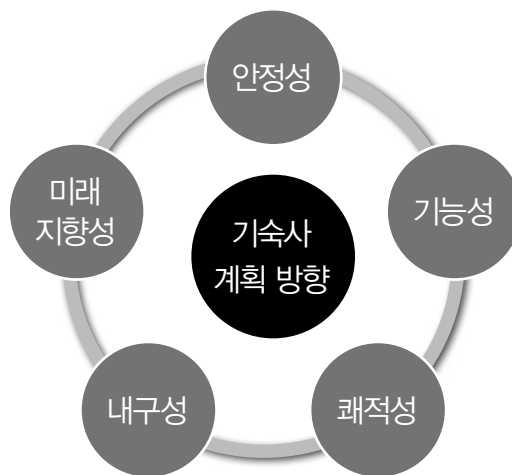
〈표 2〉 연도별 국립대 기숙사 수용률 계획(교육부 내부자료, 2014년)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목 표	24.1%	24.4%	24.6%	24.9%	25.2%	25.5%
투자계획	20.9%	22.7%	24.1%	24.5%	25.6%	26.2%

나. 기숙사 시설의 지향점

기숙사시설은 학생들의 경제·복지적 편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여 원하는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고 생활공간으로서의 쾌적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구성능을 확보한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림 2〉 기숙사 계획방향



(1) 안전성

기숙사는 지진, 폭풍, 강우, 적설, 낙뢰 등의 재해나 화재, 사고, 사건 등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성과 방법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학생들의 추락, 전도, 충돌, 골절, 화재, 끼임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세부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행동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대학기숙사들이 고층화 하는 경우 비상시의 피난과 상층에서의 탈락물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장애가 있는 아동·교직원 및 학교 개방 시의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무장애 설계(universal plan)를 적용하도록 한다.

(2) 기능성

대학기숙사는 학생들의 학과 후 친교, 휴식, 취침 등의 다양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기숙사의 각 실 규모와 각종 비품 등은 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인체 크기 및 행동특성에 적합한 치수를 계획하고 기숙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생활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3) 쾌적성

바닥난방과 시스템 냉방 등 냉난방 설비를 적절하게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와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채광, 자연환기에 의한 양호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지구환경문제와 새집증후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로 조성하며,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4) 내구성

지역의 기후 조건, 각실·공간의 사용 등을 고려한 내구성을 갖춘 설계로 계획을 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행동, 빈번한 사용에 대해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충분한 오염방지 성능을 갖춘 재료로 마감하고, 일상적인 점검과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와 구조의 기숙사를 제공한다.

(5) 미래지향성

기숙사 기능의 변화와 미래 세대의 요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과 신뢰성을 갖춘 공간과 설비를 마련하도록 한다.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기숙사 내부공간은 될 수 있는 대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향후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며 학생 수 변

화를 대비하여 향후 수직 및 수평 증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대학기숙사 시설 안전 대책

(1)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 관리

대학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지침」 및 대학 자체 규정 등을 마련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2층 이상 모든 교육시설물이 이에 해당된다. 기숙사시설 역시 많은 학생들이 거의 하루 중 절반이상을 생활하는 공간으로 사소한 부주의와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가 예방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경영자는 정기적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과 함께, 수시로 담장, 출입문, 창문, 복도, 계단, 전기시설, 소화기 등을 점검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기숙사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계획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 캠퍼스내에 기숙사를 신(개)축 시에는 분진 방지 대책, 운동장 사용계획, 공사장 구획·구분 계획(공사장 출입과 학생들 출입 및 보행·차량 동선의 분리) 등을 공사 시행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 강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여 지진 등의 재해발생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시설물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의 사감 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 외벽 및 마감재료는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에 의한 변형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선택한다.
- 경사로는 휠체어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 바닥재료를 사용한다.
- 외부창호 및 옥상 등에서 외부와 접하는 난간의 높이는 1.2m이상으로 하여 추락 사고를 예방한다.
-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복도와 계단의 폭과 경사도, 단 높이, 논슬립 등은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념한다.
- 기숙사내 비품(침대, 사물함 등)의 못이나 모서리의 안전시설에 유념하여 비품을 선정한다.

(2) 위생적이고 깨끗한 기숙사 시설

대학기숙사에서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시설과 설비 등이 위생적이어야 한다. 기숙사의 대표적인 위생공간은 화장실과 욕실로서 최근 주택 문화생활의 변화로 각 침실에 별도의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화장실의 경우도 좌변기가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한 수의 위생기구를 구비하여 위생적이며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세탁실, 건조실 등을 두어 전용 탈의실 및 샤워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고 남녀 안정실을 갖춘 보건실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위생과 건강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기숙사의 위생 문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급식시설이며, 급식시설에는 HACCP(식품 위해 요소 중점관리점)이 정하고 있는 위생조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주방 및 식당을 마련하고, 특히 주방은 청결지역, 오염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음식물 반출입과 조리시 오염되지 않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3) 편하고 안전한 집 같은 기숙사 환경

다수의 학생들이 주야간으로 생활하는 학생기숙사 계획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무해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보안(security)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⁴⁾ 지난해 8월 부산대학에서 여학생 기숙사에 20대 남성이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올 4월 또다시 한 남성이 부산대 문창회관 4층 여학생 휴게실의 문을 열고 침입해 휴게실 침대에서 자던 여대생 A씨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기숙사는 대학 어느 장소보다 편하고 안전한 '집'이어야 하며 특히 여학생만 거주하는 여자 기숙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대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캠퍼스 내와 기숙사 주변에 외부자 침입에 대해 안전을 도모하고 또한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학교 내 으스스한 공간을 폐쇄하거나 밝은 환경으로 조성하여 교내 기숙사 주변에서 학교 폭력이나 유해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적용이 요구된다.
- 기숙사 주변에는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간을 계획하고 주변 부지는 자연지형과 각

4) 대학에서 연도별로 발생한 성범죄 건수를 따져보면 2009년 32건, 2010년 42건, 2011년 63건, 2012년 63건, 2013년(8월 10일 현재) 69건 등으로 조사되고 있음(머니투데이, 대학 성범죄 5년간 269건, "매년 증가", 2013.10.13.)

시설의 효율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옥외활동을 지원하여 시각적으로 개방 공간을 조성한다.

- 기숙사내 침실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에는 CCTV용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때 학생들의 사생활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CCTV용 카메라의 화소수는 41만화소 이상이며, 최저조도가 0.001lx이상의 카메라로 주·야간 구분 없이 최적의 화상을 제공하도록 구성한다.
- 기숙사 주변에는 옥외가로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조명등은 고효율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비롯한 에너지 절약형으로 계획한다.
- 방법 종합상황실 설치 및 통합방법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학생활관 외곽, 내부, 각 방 등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상황 발생시 인근경찰서와 학교 당직실로 동시에 위급 상황이 통보되도록 한다.
- 학교 외곽의 도로와 숲길 주변, 외진 곳, 교내 여자화장실 등 취약지역에도 지능형 방법시스템을 구축한다.
- 기숙사 출입은 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출입구에 게이트를 설치하고 3단계 - 출입문, 각 층, 각 개실 등 잠금장치를 마련한다.
- 기숙사내의 안전사고나 우범 행위가 우려되는 곳은 상시 감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방법장치 설치 시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공간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하며, 보안등은 배광이 바닥면을 향할 수 있는 등기구로 계획하여 인근 주민의 사생활과 주변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라. 대학기숙사 시설 안전 대책

(1) 화재 안전의 중요성

기숙사 시설의 안전 중 가장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부문은 화재 예방이다. 기숙사시설은 많은 학생들이 거의 하루 중 절반이상을 생활하는 공간으로 사소한 부주의와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가 예방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아래 표와 같이 대규모 학생들이 취침 중에 발생한 화재사고의 경우 그 인명피해가 지대하여 학교 건물을 계획 및 설계과정에 면밀한 검토와 그리고 법적 강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설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대학 경영자와 시설 담당자들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화재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다.

〈표 3〉 기숙 관련시설 대형화재 사고

화재 장소	일시	화재	화인	피해상황
강남구 논현동	2008. 10. 20	고시원	방화 난동	사망 6명, 부상 7명
천안초등	2003. 3. 26	축구부 합숙소	취침 중 주방 발화	사망8명, 부상16명
예지학원	2001. 5. 17	기숙학원	수업 중 휴게실 발화	사망10명, 부상22명
화성 씨랜드	1999. 6. 30	청소년수련시설	취침 중 숙소 발화	사망23명, 부상6명
경기 용인	1995. 8. 21	경기여자기술학교 기숙사	방화	사망 37명

(2) 미국 기숙사 화재 예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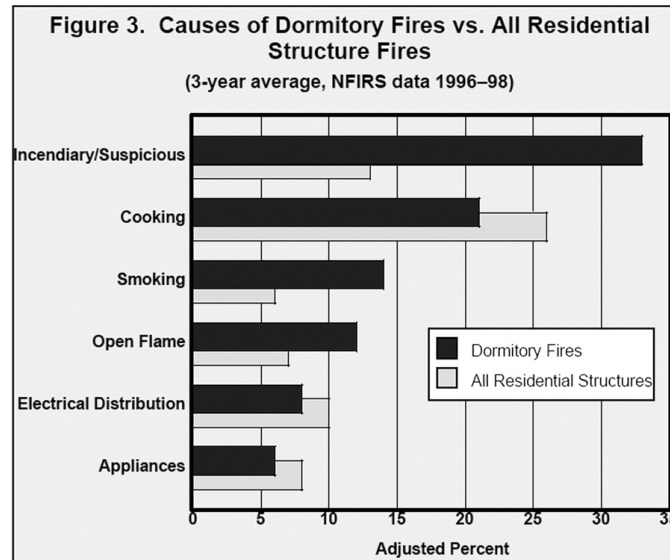
미국은 매년 약 1,300건의 초중등학교와 대학교 기숙사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서 매년 5명이 사망하고 약 50명이 상해를 입으며 4.1백만달러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아래 글은 기숙사 화재에 대하여 미국의 소방본부가 발표한 내용⁵⁾을 요약한 글이다.

(가) 미국의 기숙사 화재 발생원인

- 기숙사 화재는 주로 학기 중인 9월에서 5월중에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음
- 기숙사 화재의 1/3은 방화에 의해 일어나며, 이는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방화에 의한 화재의 2배에 달함
- 일반 주거에서 주로 발생하는 요리 중 화재 빈도는 기숙사의 경우 21%임
- 담배 화재 역시 일반주거 빈도에 2배인 14%임

5) Dormitory Fires : Topical Fire Research Series Vol.1, Issue 14, U.S. Fire Administration, 2001.03.

〈그림 3〉 미국 기숙사 화재 주요 원인



(나) 화재 발화 물질

- 기숙사 화재의 주요 발화 물질은 종이(32%)이며 이는 담배꽂초의 주요 원인임
- 그 다음이 섬유(11%), 음식(10%), 기름(9%) 순으로 조사됨

(다) 상해 원인과 위치

- 기숙사 화재에 의한 상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행위는 화재 진화과정에서의 상해(56%)이며 그 다음이 취침 중 상해(24%), 피난 중 상해(16%)로 분석됨
- 기숙사 화재로 인한 상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위치는 침실이 52%이며 그 다음이 건물내(22%), 같은 층(17%) 순으로 조사됨

(라) 미국의 화재 예방과 피난 대책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숙사에서의 생활 안전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화재와 피난에 대한 연구 결과 중 주요 부분을 요약한다.

- 기숙사 화재의 원인 중 21%가 담배에 의한 화재이며, 금연 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흡연이 이루어진다면 연기 탐지기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 각 침실에서 피난 로비나 복도로 연결되는 출구까지의 거리는 최소한 9m이내로 하고 두 개

이상의 출구가 있을 경우는 최소한 18m 이내로 함

- 방화문은 소방법에서 정하는 규격에 맞추어 적정 위치에 배치함
- 배연설비(smoke control)는 피난뿐만 아니라 소화에도 도움이 되며, 거주 영역의 로비와 복도, 그리고 피난계단에 설치함
- 화재탐지기와 비상피난조명 역시 소방법 규정에 맞추어 설립함
- 미국은 2000년에 발생한 Seton Hall 대학 화재이후 기숙사에 대한 화재 예방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있음
- 특히 모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sprinklers)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기숙사에도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3) 기숙사 시설 화재 예방 대책

기숙사의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은 건축 관련법 및 소방법 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방화 및 안전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 기숙사내는 금연시설로 운영하고 전기기기의 용량 및 전압에 적합한 규격의 전선을 설계하며 실내에서는 전열기 사용을 금한다.
- 소방시설은『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 소방시설을 마련한다.
- 소방시설은 기숙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 화재감지 및 초기 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 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천정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난 경로는 간명하게 한다.
- 계단은 비상시 학생이동을 감안한 적정 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계단의 위치를 적절히 분배하여 학생들의 분산 이동을 유도시키며, 3층 이상 기숙사의 경우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다.⁶⁾
- 각 침실에서 피난 로비나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최소한 25m 이내로,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 바깥쪽까지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도 25m이하로 한다.⁷⁾

6)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이 200㎡이상인 건축물은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7)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50m이하(주요구조부가 내화 및 불연재일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 방화문은 소방법에서 정하는 규격에 맞추어 적정 위치에 배치하고 화재탐지기와 비상피난조명도 소방법 규정에 맞추어 계획하며, 각종 소방설비의 동작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설치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등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 미만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설치한다.
- 소방시설관련 기준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3,0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기숙사의 각 침실과 복도 등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마. 학생기숙사 화재 관련 건축법 및 소방 관련법 기준 강화

학생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소방관련법에서는 교육연구시설 중 기숙사로 분류된다. 건축법에서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며,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유사시설로는 청소년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과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이 있다.

학생기숙사의 경우 다중의 인원이 밀집하여 생활하며 화재의 경우 취침 중에 발생할 여지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대형사고로 발전을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겠다.

(1) 피난 보행거리 기준 단축

-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각 침실에서 피난 로비와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각각 50m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학생기숙사에서는 기숙사 침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거리를 최소한 25m이하로,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도 25m이하로 강화함
- 이는 다수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복도나 계단으로 몰릴 경우를 고려하여 피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표 4〉 피난보행거리 기준 단축

법적기준		보완 및 개정(안)
근 거	기 준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1조	-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50m 이하 -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50m이하	- 기숙사 침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거리를 최소한 25m 이하 -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도 25m이하

(2) 복도 유효너비 확대

- 기숙사의 복도 폭은 화재나 지진 시 대피 통로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숙사내 환기를 위해서도 현행 최소 폭은 확대되어야 함
-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복도 폭은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경우 1.8미터 이상, 기타 복도는 1.2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 학생기숙사의 복도 유효너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경우 2.1미터 이상, 기타 복도는 1.8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표 5〉 복도 유효너비 확대

법적기준		보완 및 개정(안)
근 거	기 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공동주택의 복도의 유효너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경우 1.8미터 이상, 기타 복도는 1.2미터 이상	기숙사의 복도의 유효너비는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경우 2.1미터 이상, 기타 복도는 1.8미터 이상

(3)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 강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에는 기숙사시설에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가 명기되어 있음
 - 이 규정에 따라 방화문은 적정 위치에 배치하고 화재탐지기와 비상피난조명도, 옥내소화

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함

- 다만 현행 관련법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를 전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학생기숙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기숙사의 각 침실과 복도 등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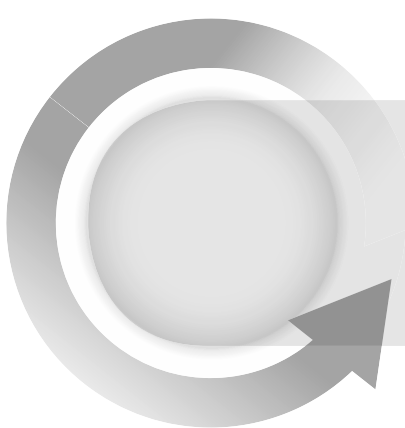
〈표 6〉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

법적기준		보완 및 개정(안)
근 거	기 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관련 [별표 4]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층에 설치	연면적이 3,0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기숙사의 각 침실과 복도 등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함

3 마무리 하면서

앞에서 대학시설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시설물 안전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특히 기숙사 시설을 중심으로 방법 대책과 화재 예방 대책을 논하였다. 결론으로 건축관련법이 정하는 기숙사 피난보행거리 기준과 복도 유효너비를 보완 수정하는 안을 제안하였으며, 소방법에서 정하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전국적으로 건립될 대학기숙사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충분히 안전하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주제발표Ⅱ

교육과 주거의 통합방안 모색 : 기숙형 대학(RC)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주제발표Ⅱ

교육과 주거의 통합방안 모색 : 기숙형 대학(RC)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최근 국내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고등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 이하 RC)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RC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국내 교육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한국형 RC의 모형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처럼 RC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기존의 교과과정과 강의실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비교과과정을 초점을 두고, RC기숙사에서 학습공동체 생활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는 전인 교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RC의 중심역할인 RC기숙사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숙식과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 환경만을 제공하던 기존 기숙사의 틀을 넘어 서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향후 RC기숙사를 포함한 RC는 창조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차별화된 고등교육 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 기숙형 대학의 도입 배경 및 유형

우리나라도 지식정보사회에서 창조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 지속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과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의 대학들은 창조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혁신에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이 공급자시장에서 수요자시장으로 변화하고, 동시에 교육환경의 글로벌화가 추진되면서 우수한 학생과 교수를 유치하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이 국내뿐만 아니

라 국제간에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서 대학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수, 학생 모두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보다는 이제는 국가간 학위·자격 인정 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관리(quality assurance)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대학입학자원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에 모든 대학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주도의 대학평가가 더욱 강화되고, 국제화에 따른 대학간 경쟁의 심화로 대학의 생존은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대학은 독자적인 차별화된 생존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연구중심, 교육중심, 평생교육 등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대한 대학특성화를 통해 치열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교육중심 대학의 경우 차별화된 교육만이 대학의 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인이기에 첨단 ICT를 활용한 사이버 교육이나 선진화된 RC를 도입하여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급속한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은 기존의 교수 강의에 의존하는 강의실 중심의 일방적인 교육방식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물론 강의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틀을 벗어난 획기적인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중심대학의 경우에는 선진 교육명문대학의 교육 체계인 RC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교육과정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화된 RC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맞게 RC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환경과 학생들에게 적합한 한국형 RC 시스템 개발 및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RC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도 RC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RC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학생의 기숙형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생활공간이자 공동체 교육공간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서 대학환경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RC기숙사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기숙형 대학(RC)의 개념 및 장·단점

RC는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등 유럽 명문 대학에서 기숙과 교육을 함께 병행하는 대학 문화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20세기 초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미국 주요 명문 사립대학에서 체계적인 RC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라이스 대학교, 노스웨스턴 대학교 등 신흥 명문 사립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RC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학생교육 지도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RC는 기존의 단순 주거 공간으로만 사용되어 왔던 기숙사와는 달리 학생들이 생활체험과 대학생다운 지적 자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활과 교육의 일체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교육 및 전인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이다. RC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대학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진로설계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성공적으로 RC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이념에 맞는 차별화된 RC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RC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그림 1〉 RC 개념



국내의 RC를 추진 중에 있거나 또는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RC의 장·단점을 학교와 학생입장에서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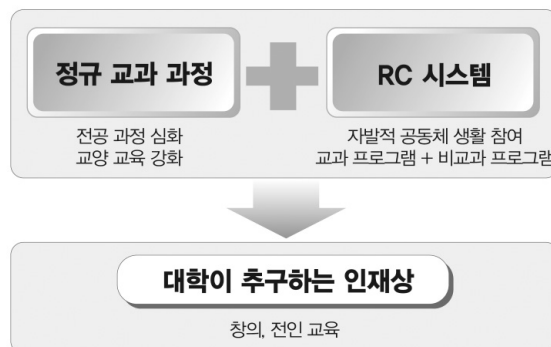
○ 학교관점 :

RC의 장점으로는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력을 갖춘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 교양교육, 전공교육, 비교과과정에서 교육과정 개편, 교재개발, 학제간 융합 프로그램 확대, 학사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 학부교육 선진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학생과의 유대감을 강조하여 소속감 고취 및 애교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 RC에서 우려되는 단점으로는 RC 교육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지 않아 일회성으로 운영될 경우 상급학생들에 대한 RC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성 및 연계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RC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재원부담,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도 증가되므로, RC 시설 및 교내시설의 운영시간 확대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발생으로 학교재정 압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 학생관점 :

RC의 장점은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취업위주의 학습 환경에서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성 및 봉사정신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감성적 리더십, 자발적 동기부여, 창의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 시간 활용과 학습능력 향상이 가능하다. RC에 따른 단점으로는 학생이 RC에 의무 거주를 해야 하기에 학생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근지역 또는 통학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RC기숙사에 1년 의무 거주를 강제화 한다면 학생뿐만 아니라 추가로 RC기숙사비를 내야하는 학부모의 불만도 커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종류의 장학제도 개발, 아르바이트 소개 등 RC 참여 학생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다보니,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의 개인 공간 확보도 반드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2〉 RC의 확장



3 기숙형 대학의 적정 시설 및 RC 교육 프로그램 특징 및 유형

가. 기숙형 대학의 적정 시설

가-1. RC기숙사 설계진행을 위한 사전 결정사항

RC 기능을 캠퍼스 내에 갖춘 학교는 과거에도 지방권 일부에 있었다. 최근에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RC를 도입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겨나고 기존의 대학시설을 이용하며 대규모 기숙사를 추가로 건설하여 RC를 도입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기숙사는 기숙사의 기본기능 외에 추가적인 기능들을 갖춘 RC기숙사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RC기숙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숙사의 기능에서 다음과 같은 RC 교육 프로그램의 기능을 부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생들에게 단순한 거주공간인 기숙사를 생활체험 교육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주간 학습활동과 방과 후 공동체 활동을 융합한 통합형 교육체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창의적 역량과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한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캠퍼스 내부, 캠퍼스 외부에 해당 용도의 공간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입지에 따라 보조캠퍼스, 캠퍼스 확장, 캠퍼스 보강 계획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스터 플랜에 따라 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중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RC기숙사를 배치하면 된다. 또한 RC 교육기간에 따라 그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입생 전원을 수용할지 나누어 수용할지 특정한 의무 기숙기간에 따라서 그 공간의 규모가 달라진다. 학교별로 RC의 목적에 부합된 생활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먼저 수용인원에 따른 특성화된 하우스를 몇 개를 둘 것인지 결정해야하며, 조닝을 수직적으로 할 것인지 수평적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형태의 생활공간(1인~4인실)을 구성할 것인지 다인실(10인실, 8인실, 6인실 등)로 전부 구성할 것인지, 일부만을 다인실로 둘 것인지 등 기본 단위(Unit)의 규모를 결정해야 건축구조모듈 및 매스(Mass)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가-2. 입지에 따른 RC기숙사의 유형분류

기존 캠퍼스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캠퍼스 내에서 RC 기숙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학습지원공간과 거주하는 생활공간의 위치와 일반적인 대학시설(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의 위치에 따라 RC기숙사를 구분하여 보았다.

① RC 또는 RC 독립형 캠퍼스(보조 캠퍼스 계획)

거주형 캠퍼스의 기능을 최초 설립때 부터 계획한 경우이며 RC기숙사는 RC 독립형 캠퍼스의 일부이다. 캠퍼스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기숙사 포함), 연구시설, 부속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의 의무입사를 통해 RC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사례로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예정)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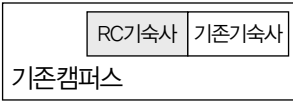
② 캠퍼스 복합형 RC기숙사(캠퍼스 보강계획)

기존의 캠퍼스 내에 입지하여 RC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학습지원공간과 생활공간을 갖춘 경우로 대부분의 대학이 기숙사 시설을 캠퍼스 내에 확충하면서 추가적인 학습지원공간을 같이 계획한 기숙사라고 할 수 있다. 사례로 서울여대, 한림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이화여대(시범운영 및 캠퍼스 내 계획 중) 등이 있다.

③ 캠퍼스 인접형 RC기숙사(캠퍼스 확장계획)

기존 캠퍼스 경계에 인접 혹은 연접하여 RC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로 기존 캠퍼스의 일부 공간을 이용하고 RC기숙사를 교내와 인접한 교외에 건립하여 일부 학습지원공간을 외부와 공유할 수 있다. 사례로 덕성여대(예정)가 있다.

〈그림 3〉 캠퍼스와 RC기숙사 입지에 따른 구분

구 분	내 용	한국형RC적합여부	개념도	
독립형 (보조 캠퍼스)	캠퍼스 자체가 하나의 RC이며 RC를 위하여 별도의 캠퍼스(RC 기숙사 포함)를 조성한 사례	부적합 (예산 및 인허가 문제)	기존캠퍼스	RC캠퍼스
복합형 (캠퍼스 보강)	기존 캠퍼스 내에 하나의 시설로 RC기숙사를 설치 한 사례	적합		
인접형 (캠퍼스 확장)	기존 캠퍼스 경계에 인접 혹은 연접하여 RC기숙사를 설치한 사례	적합	기존캠퍼스	RC기숙사

가-3. RC기숙사와 일반기숙사의 공간비교

○ 일반기숙사의 공간분류

일반적으로 기숙사는 통학시간의 단축에 따른 효율적인 시간관리 목적 및 기본생활 가능 시설 등의 전통적인 기능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거주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을 포함하며 공동생활에 따른 공동체의식 함양과 이용자 간의 유대감과 도덕정신, 가치관과 인격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행복(공공)기숙사에 서는 아래와 같이 그 공간을 구분하였다.

〈표 1〉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공공)기숙사의 공간 분류기준

구 분	내 용	실 명
	생활공간	단위실, 세면실, 샤워실, 화장실 등
지원공간	학습지원	세미나실, 열람실, 컴퓨터실, 기도실 등
	복지지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시청각실, 세탁실, 공동취사실, 다목적실, 사생활실 등
	편의지원	매점, 카페, 빨래방, 문구점, PC방, 식당, 주방 등
	관리지원	경비실, 행정실, 우편실, 택배함, 사감실, 행정창고 등
공용공간	동선 및 공용시설	로비, 복도, 계단, 홀, ELLEV, 공용화장실, 지하주차장 등
	설비공간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기전창고, 미화원대기실 등

○ RC기숙사의 공간분류

일반 기숙사나 RC기숙사나 공통분모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일반 기숙사와는 달리 RC기숙사는 의무적으로 입사하여야 하며 RC 프로그램을 통해 RC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교양필수과목을 이수하거나 제공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RC기숙사는 RC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며 RC기숙사의 수용인원, 의무입사기간, RC 프로그램의 성격과 종류,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공간이 연출될 수 있다. 다음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제시했던 행복(공공)기숙사의 공간구성 분류 기준에 RC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들을 추가적으로 제시·비교하였으며, RC 프로그램의 개념을 기존 기숙사의 기능에 종속적으로 분류할 수 있고 기존 기숙사의 기능에 부가하여 독립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표 2〉 종속형 RC기숙사의 공간 분류기준

구 분	내 용	실 명	비고
생활공간		단위실, 세면실, 샤워실, 화장실 등	
		RC형 단위사생실, RC서포터즈룸, RC마스터룸	RC전용
지원공간	학습지원	열람실, 컴퓨터실, 기도실 등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 세미나실	RC전용
	복지지원	휴게실, 세탁실, 공동취사실, 다목적실, 사생화실 등	
		휘트니스센터, 다목적GX룸, 멀티미디어실	RC겸용
	편의지원	매점, 카페, 빨래방, 문구점, PC방, 식당, 주방 등	
	관리지원	경비실, 행정실, 우편실, 택배함, 사감실, 행정창고 등	
		RC강사연구실, RC행정실, RC행정창고, RC회의실	RC전용
공용공간	동선 및 공용시설	로비, 복도, 계단, 홀, ELEV, 공용화장실, 지하주차장 등	
	설비공간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기전창고, 미화원대기실 등	

〈표 3〉 독립형 RC기숙사의 공간 분류기준

구 분	내 용	실 명
생활공간		단위실, 세면실, 샤워실, 화장실
지원공간	학습지원	열람실, 컴퓨터실, 기도실 등
	복지지원	휴게실, 시청각실, 세탁실, 공동취사실, 다목적실, 사생화실 등
	편의지원	매점, 카페, 빨래방, 문구점, PC방, 식당, 주방 등
	관리지원	경비실, 행정실, 우편실, 택배함, 사감실, 행정창고 등
RC공간	RC관리지원	RC서포터즈룸, RC마스터룸
		RC강사연구실, RC행정실, RC행정창고, RC회의실
	RC복지지원	휘트니스센터, 다목적GX룸, 멀티미디어실, open space
	RC학습지원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 세미나실,
공용공간	동선 및 공용시설	로비, 복도, 계단, 홀, ELEV, 공용화장실, 지하주차장 등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기전창고, 미화원대기실 등
	설비공간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기전창고, 미화원대기실 등

RC기숙사에서의 생활공간은 취침공간으로 각 실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표준화된 그룹핑이 되어 단위 공간(층별, 건물별)을 형성한다. 숙박 공간 내에 거실 또는 학습공간을 두어 개별적 학

습공간과 소그룹 토론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지원공간은 각종 복지(휴게실, 체력단련실, 세탁실 등) 및 편의시설(매점, 카페, 식당 등)이 배치되며 RC이외의 개별 학습 공간(열람실, 컴퓨터실, 기도실 등)을 제공한다. RC 공간은 RC 교육 및 그 지원기능이 행해지는 공간으로 학생들의 원활한 이동 동선과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유연성이 요구되는 공간이다. 강의, 세미나, 분임토의, 실습활동, 전시, 연주, 스터디그룹, 연구, 행정 등 RC 교육과 관련된 기능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강의실, 세미나실, GX룸, 분임토의실, 스터디룸, 다목적실, RC 강사연구실, RC 운영지원실 등을 필요로 한다. RC 운영지원실은 행정실과 별도로 운영된다.

가-4. RC기숙사의 공간구성 및 계획

- **생활공간** : RC기숙사에서 생활공간은 취침공간으로 각 실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표준화된 그룹핑이 되어 단위 공간(층별, 건물별)을 형성한다. 숙박 공간 내에 거실 또는 학습공간을 두어 개별적 학습과 소그룹 토론이 가능하도록 거실형기숙사 타입을 제시하였다. 거실형 기숙사는 소규모 그룹핑을 통해 소속감과 집단의식을 형성하여 공동체생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평면이다. 세대내 공용거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는 동시에 개인의 휴식, 취침, 학습 등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며 이러한 평면을 통해 큰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생활공간 전체를 다인실로 구성하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등 미래 환경에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일부실(약 5~10%정도)¹⁾만 다인실 형태의 거실형기숙사로 꾸며 RC 프로그램에 따라 팀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간에 있는 학생들이 일정기간(밀어내기식 순환방식 방배정) 사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만일 다인실의 조성이 어렵다면 하나의 생활공간내에 학습공간과 침실공간을 구분하여 학습공간에서 팀플레이를 하는 계획안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RC기숙사의 해외 사례 및 국내 사례의 경우처럼 약150~300명 정도의 규모로 하나의 하우스(House)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룹핑을 한다. 대지면적의 한계로 수평적인 그룹핑이 어렵다면 2~3개층씩 묶어 하나의 수직적인 그룹핑이 가능하도록 하여 클럽룸, 세미나룸, RC마스터룸(하우스당 1ea), RC 서포터즈룸(RC 약20명당 1명/2인1실, 연세대 사례), 게스트하우스 등 각종 연계시설들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래는 거실형 기숙사의 다양한 사례평면을 제시하였다. 1인당 침실면적을 참고하

1) 한학기 수업기간 15주 중에서 중간/기말 시험기간을 제외한 약10주의 기간 동안 RC기숙사 전체 수용인원을 10등분하여 팀프로젝트 등 집중적으로 3일 혹은 6일간 진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 6인~10인 다인실의 경우 방학 중 외부 수익사업(캠프 등)으로도 활용성이 좋음

여 해당사업의 단위(Unit) 적용에 사용하되 형태에 따라 다인실의 경우 세면장, 화장실, 샤워실이 부족하다면 공용공간에서 그 기능을 보완하여 별도로 두어야 한다.

- RC 학습공간 : RC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교과 프로그램과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교과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면서 하우스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우스별로 다양화, 차별화 하여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교과 프로그램은 학점을 이수해야하는 필수과목으로 기존 캠퍼스 내에서 이뤄질 수 있지만 동시에 RC 학생들만을 위하여 RC기숙사내에서 하우스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RC의 차별화와 활성화를 유도한다. 전체 규모에 따라 균형 있게 공간을 조성하여야 하되 각 하우스별(200명 기준) RC 프로그램 공간으로 클럽룸 30㎡, 소형강의실 40㎡, 실습실 및 중대형강의실 40~200㎡, 세미나실 1개소 및 open space를 확보한다.

〈표 4〉 강의실 크기에 따른 수용인원 일반적 기준

구 분	초소형 5.7×6.9	소형 7.8×6.9	일반 10.1×6.9	중형 12×9.6	대형 20×9.6	시청각실 23.4×19.5
면적	40	54	70	115	192	450
설계최대좌석	20	40	64	80	156	240
제한수용인원	15	35	55	75	140	210

〈표 5〉 하우스별(200명기준) RC공간 세부기준 제안

구 분	unit 크기(㎡)	수용인원(인)	개 소	면적(㎡)	비 고
클럽룸, 상담실	3.6×7.8=30	20	1	30	
소형강의실	7.8×7.8=60	40	1	60	
실습실	7.8×10.5=80	40	1 ²⁾	200	용도별 실습집기/가구고려 (가변형 가능)
중대형실습실(GX룸)	10.5×15.6=160	80			
중대형강의실	10.5×15.6=160	120			분할/아일랜드타입 고려 (가변형)
대형강의실	15.6×15.6=240	200			
시청각실	450	210			전체1ea
RC Room (휴게/세미나실)	소형모듈	40	1	40	각 층
계				약330	관리지원 공간제외

2) 실습실, 강의실의 선택은 300명당 1개소를 학교별 우선순위를 두어 결정한다. 가령 1,000명 수용의 RC 기숙사인 경우 각각 1개씩 5종류를 둔다.(실습실1ea, 중대형실습실1ea, 중대형강의실1ea, 대형강의실1ea, 시청각실1ea)

- ※ RC Room(40㎡)는 하우스별 휴게겸용으로 1하우스당 1개소(최소 층별 1개소)
- ※ RC기숙사는 여러 하우스의 조합이므로 RC공간구성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으며, 1,000명 기준인 사례로 $1,000\text{명}/200\text{명} \times 330\text{㎡} = 1,650\text{㎡}$ 정도 구성할 수 있다. 세부 예시로 클럽룸 30㎡ 3개소, 상담실 30㎡ 2개소, 소형강의실 5개소, 실습실 1개소, 중대형실습실 1개소, 중대형강의실 1개소, 대형강의실 1개소, 시청각실 1개소, 세미나실 40㎡(1/2로 구분가능) 5개소 등 1,740㎡을 둘 수 있으며 가변형 벽체 및 아일랜드형 타입을 반영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RC 교류공간 : 대화, 토론, 사교, 면담 등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사생실내 거실공간과 공동조리시설, 공동휴게공간, 세미나실 등과 같이 별도의 실을 둘 수도 있으며, 복도 포켓공간이나 로비 등 공용공간, 외부휴게공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하우스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로비/홀 등의 open space와 층과 층사이의 교류공간, 브릿지를 통한 연계공간, 외부 교류공간을 둘 수 있다.
- RC 활동공간 : 비교과 RC 프로그램 공간과 학생들의 체육, 문화,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편의 및 복지공간으로 볼 수 있다. 비교과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수영장, 실내배드민턴, 인공암벽, 스쿼시룸 등), 휘트니스센터, 건강증진센터, 다목적 GX룸(태권도룸, 요가 등) 등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며, 편의 및 복지공간으로 카페나 베이커리, 서점, 문구점, 출력소, 프랜차이즈음식점 등을 둘 수 있다.
- RC 기타공간 : 행정 및 교육지원 공간을 둘 수 있으며, RC 행정실, RC 행정실 창고, RC강사연구실 등이 있고 생활지도 및 운영을 위하여 사감실, 행정실, 행정창고 등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또한 지원공간으로 택배룸, 우편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MDF실, 종합관재실 등이 필요하다.

나. RC 교육 프로그램 특징 및 유형

나-1. RC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 고려사항

RC를 도입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RC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대학시설과 주변시설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RC기숙사를 운

영하기에 앞서 현재 대학이 이용 가능한 공간과 시설에 대한 사전 현황 조사를 하여 중복 시설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대학 실정에 적합한 RC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가 사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교수, 직원, 학생 및 외부 전문가 등 관심 있는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여 RC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다양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동문,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RC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전제는 모든 RC 교육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타당한 방식이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셋째, 위와 같은 요소들이 확정이 되면 RC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방안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RC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기별, 주기별 기준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 할 것인지,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학 본부 차원의 의사결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RC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RC 기숙사생들에만 제한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대상이 아닌 일반학생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RC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 및 직원,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양질의 RC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RC 건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과 학생들이 느끼는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기존의 대학시설과 주변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RC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방안과 소요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재원확보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RC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기별, 주기별 운영기준이 필요할 것이며, RC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 할 것인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학 차원의 RC 운영방안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2. RC 교육 프로그램 종류 및 특징

RC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을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교과 프로그램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 글로벌 리더십 능력, 자원정보 기술활용 능력, 자기관리 능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 능력, 공적 윤리 및 시민 의식과 나눔의 책무성, 예술 및 심미적 탐구

능력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문화, 예술, 미디어·창작, 학술, 사회, 종교, 사교, 스포츠, 자격증 및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교과과정에 중심을 둔 교육과정과 차별화되는 RC 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 RC 교육 프로그램 분류

구분	교과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
유형	•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 • 글로벌 리더십 능력 • 자원정보 기술활용 능력 • 자기관리 능력 • 자기주도 학습 능력 • 대인관계 능력 •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 능력 • 공적 윤리 및 시민 의식과 나눔의 책무성 • 예술 및 심미적 탐구 능력	• 문화 분과 • 예술 분과 • 미디어·창작 분과 • 학술 분과 • 사회 분과 • 종교 분과 • 사교 분과 • 스포츠 분과 • 자격증 및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1) RC 교과 프로그램 종류 및 유형

RC 교육 프로그램 중 교과 프로그램의 종류 및 유형은 비교과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일반 대학교의 경우에 교과 과정 중심으로 운영이 되며, 교무위원회 또는 교과과정위원회 등을 통해 교과과정이 결정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 학사과정에 있는 과목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다. 나아가 추가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과과정위원회를 통해 신규과목 운영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교육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문제를 인식하고 개념화하며, 문제해결 방법을 구성하고 실행을 통해 결과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창의적 융·복합 교육 교양 핵심 교과목, 문화적 다양성 체험 교과목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장 체험형 탐구 프로젝트 병행을 통한 능력 배양을 고려할 수 있다.

○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적 정보, 감정, 의견,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인 관계 맥락과 문화적 맥락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 프로그램으로는 의사소통 기술 관련 프로그램, 글쓰기 프로그램, 이해와 소통 및 토론 수업, 고전 독해 토론 수업 등이 있다.

○ 글로벌 리더십 능력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개방적인 자세 및 국제문제에 대한 시각을 지니고 평등성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과 인류애를 기초로 한 가치지향적인 태도를 배양하는 목표를 지닌다. 외국어 표현 프로그램, 사회와 문화 영역 교과목, 다문화 사회 적응 관련 현장 활동, 엘리트 인재 양성 프로그램,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교과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 자원정보 기술활용 능력

학습 및 과제수행을 할 때 정보자원과 내적·외적 자원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기술 영역 교과목, 물질과 생명 영역 교과목, 가용 자원의 종류와 활용, 도서관 활용법, 그리고 문헌조사 및 논문 작성법 등의 대표 프로그램이 있다.

○ 자기관리 능력

자기 스스로의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고 목표달성에 유용한 생활 태도를 개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스스로를 동기화하고 부정적 정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철학과 역사 영역의 교과목, 정서 조절 프로그램 등이 있다.

○ 자기주도 학습 능력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학습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학습상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내용이다. 학습법 및 학습 전략 프로그램, 학습 포트폴리오 제작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 대인관계 능력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인간관계를 맺고 협력하며,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 혹은 간접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대인관계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능력을 키우는 목표를 가진다. 전공 봉사 활동, 지식 나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

○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 능력

조직 및 개인 생활에서 경험하는 각종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정서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관련 교과목, 관광과 레포트 관련 교과목이 대표적이다.

○ 공적 윤리 및 시민 의식과 나눔의 책무성

글로벌 리더십과 목표가 비슷하며 여성과 사회참여 영역 교과목, 나눔 프로젝트, 공존 프로젝트, 사회봉사 연계 과목 등이 대표적이다.

○ 예술 및 심미적 탐구 능력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토대로 사회·국가·세계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키운다. 문화예술 기반 융합형 프로그램, 동양 예술의 이해, 서양 미술의 이해 등 관련 교과목이 있으며, 문학과 예술 영역 교과목 등도 해당이 된다.

(2) RC 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구성

RC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의 건학이념, 교육철학, 교양교육 비전에 기반을 두고 교과·비교과, 이론·실천을 연계하는 통합적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즉, 미국의 학부중심대학(Liberal Arts College)식의 강의 형태를 도입하여 대형 강의와 소규모 튜터 토론을 병행하며 학생 주도적 교육을 지향 한다. 인문·사회·자연·예술 등의 2개 이상의 분야를 융·복합하여 교과목을 개발하여,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분야를 섭렵하여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개진하고 토론하는 능력을 키워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의식과 해결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또한 학술자료와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고 분석하며 토론하는 능력과 함께 에세이·보고서·논문 등 다양한 유형의 학술적인 글로 구성하는 능력, 다양한 문화적 체험(비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민(Global Citizenship)의 이론적 배경을 쌓는 교육을 지향한다. 이러한 체험활동은 교과목 운영의 효율성에 따라 대단위, 중단위, 소단위로 구성할 수 있으며, 15~20명 단위의 소단위 수업은 컴퓨터, 압막, 프로젝터가 설치된 소규모 강의실을 이용한다.

RC에서 운영하는 각 프로그램은 최소 1학점 이상의 학점을 부여하며 학기별 취득학점 요구, 학점 은행제, 졸업인증 학점 등으로 이수를 권장하며, 해외 어학연수,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 탐방, 인턴십 우선 선발, 장학금 수여 등의 다양한 포상 제도를 두어 동기유발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공모전,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우수 레포트 선발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제 선발, 학술제 등 다양한 발표의 장을 두어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 대학의 건학이념, 교육철학, 교양교육 비전에 기반을 둔 교과목 개발
- 인문·사회·자연·예술 등의 최소 2개 이상의 분야를 포함한 융·복합 교과목 개발
- 교과·비교과, 이론·실천을 연계하는 통합적 교육모델 제공, 학생 주도적 교육 지향
- 미국의 학부중심대학의 강의 형태를 도입 : 대형 강의 + 소규모 튜터 토론
- 체험활동은 교과목 운영의 효율성에 따라 대단위, 중단위, 소단위로 구성
- RC에서 운영하는 각 교과목은 최소 1학점 이상의 학점을 부여하며 학기별 취득학점 요구, 학점 은행제, 졸업인증 학점 등으로 이수 필수
- 학교 정규 수업, 졸업인증제 및 RC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영어 및 제2외국어의 경쟁력 강화 지향
-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분야를 아우르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개진하고 토론하는 능력 함양 추구
- 동서고금의 명저들을 정독하여 핵심 논점을 도출한 다음 이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공모전,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우수 레포트 선발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제 선발, 학술제 등 다양한 발표의 장을 두어 정보 교류 확산
- 해외 어학연수, 아이비리그 대학 탐방, 인턴십 우선 선발, 장학금 수여 등의 다양한 포상 제도를 두어 동기유발과 적극적 참여 유도
- 학술자료와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고 분석하며 토론하는 능력과 함께 에세이·보고서·논문 등 다양한 유형의 학술적인 글로 구성하는 능력 함양
- 문화적 다양성 체험(비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민의 이론적 배경을 쌓는 교육 지향

(3) RC 비교과 프로그램 종류 및 유형

RC 비교과 프로그램은 교과 프로그램의 이론적 수업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행하여 이루어 내는 상호보완적 교육 체험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식의 실제현장의 적용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평가하여 개선하는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RC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성이 있다. RC 교과 프로그램이 학교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일반 교

과 과정의 연장선이라면, RC 비교과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제약 없이 학생들이 기획하고 운영하기에 학생 중심적, 학생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문화 분과

학교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며, 특정 문화나 국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담고 있다. 정기적인 공연, 명절 행사, 음식을 통해 RC 학생뿐만 아니라 캠퍼스 구성원 모두와 함께 자신의 문화유산을 공유토록 한다.

○ 예술 분과

예술적 감수성 등을 키우는 활동으로 작품 전시, 공연 관람, 콘서트 참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토록 한다. 미술활동, 음악활동, 댄스활동, 연극활동, 기타활동 등이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 미술활동 : 드로잉, 만화, 사진, 서예, 수채화, 유화 등
- 음악활동(노래) : 성가대, 아카펠라, 재즈, 합창단, 대중음악밴드 등
- 음악활동(악기) : 드럼, 전통 북, 클래식 기타, 오케스트라, 풍물패 등
- 댄스활동 : 라틴 댄스, 발레, 백댄서, 사교댄스, 율동패, 재즈 댄스 등
- 연극활동 : 극단, 무대, 뮤지컬, 연극, 인형극, 즉흥 코미디 등
- 기타활동 : 영화 제작

○ 미디어·창작 분과

창작활동은 국제관계, 문학, 예술, 졸업앨범 제작, 학술 논문집 작성, 지역문화 소식 탐방 등이 있으며 미디어 활동에는 뉴스레터 발행, 학교 방송국, 영자신문, 대학신문 등이 있다.

○ 학술 분과

학업과 연계를 하거나 특정 사회 이슈 또는 여가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문주제로는 경제학, 국제관계, 금융, 정치, 의학, 역사 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연계 활동은 모의 유엔, 모의재판 등이 있다.

○ 사회 분과

사회적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동료 학생들에게 해당 이슈를 알리고 참여 또는 지원을 취하게

꿈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주관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다.

- 정치활동 : 정당 토론, 각종 사회 이슈 활동
- 사회참여활동 : 공중보건, 교육운동, 국제사면위원회, 동성애, 인권, 여성 등
- 환경 : 에너지와 환경보호, 슬로우 푸드 제작, 친환경 텃밭 가꾸기 등
- 자선 및 봉사활동 : 김장 담구기, 멘토링, 사랑의 도시락, 연탄 나르기 등

○ 종교 분과

종교 동아리 단체는 학생에게 의지되고 힘이 되는 공동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영적 전통을 유지 또는 새로운 종교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카톨릭,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등의 목회와 예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사교 분과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교수 및 직원 등 학내외 구성원들과 서로 공통의 관심사, 취미 등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 사교 클럽 : 동문회 등
- 조합 : 친환경 조합 등
- 창업·사업 : 그림 빌려주기, 커피하우스, 펍 등
- 동호회 : 무전기, 문화생활, 여행/답사, 영화 등
- 취미활동 : 당구, 독서, 마술, DIY, 요리, 체스 등

○ 스포츠 분과

스포츠 분과는 교과 프로그램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웰슬리 대학 경우에는 체육, 운동과 레크리에이션(PERA :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Athletics)이라는 부처를 통해 모든 스포츠 활동을 총괄한다.

- 수상 스포츠 : 다이빙, 수영, 수중발레, 요트, 조정, 카누, 수구 등
- 댄스 : 댄스 기초, 뮤지컬 기초, 발레, 벨리댄스, 라틴댄스, 사교댄스, 현대 댄스, 재즈 댄스, 아프리카 댄스, 아프로-브라질 댄스, 인도 전통춤, 아일랜드 전통 춤 등
- 체력단련 : 심폐기능 단련, 근력강화 운동, 요가, 체력 권투, 필라테스, 스피닝, 걷기, 등산, 줍바 등
- 무술 : 우슈, 쿵푸, 태극권, 호신법

- 스포츠 : 농구, 축구, 크로스핏, 라크로스, 배드민턴, 볼링, 탁구, 스쿼시, 승마, 양궁, 펜싱, 골프, 스키와 스노보드, 테니스, 배구, 소프트볼, 필드하키, 육상, 암벽타기 등
- 자격증 프로그램 : 스쿠버 다이빙, 인명 구조원 자격증, 에어로빅 강사 자격증 등

○ 자격증 및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진학 및 취업을 위한 자기개발 활동으로 정보기술자격(ITQ)취득, AICPA, CPA, GRE, TOEFL 등이 있다.

(4) RC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구성

RC 비교과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주도적·능동적 참여가 필수이며, 특히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고 요구하는 학생주도 프로그램의 개발에 협동이 필요하다. 첫째, 동아리 연합회에서는 학생주도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단체 중복 여부, 활동비 배정, 동아리 소개 행사 등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둘째, 학생참여 지원센터, 즉 학생처에서는 동아리 연합회와 함께 모든 학생이, RC 대상 및 비대상 학생들 모두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스포츠 경기 관람, 연극 관람 등의 외부활동을 기획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캠퍼스 연주회, 전통문화 행사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첫째, 학생들이 공통 경험을 통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행사 참여를 통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색하고, 대학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 하도록 한다. 셋째, 동아리 단체 지도교수나 멘토와의 협동을 통해 잠재적인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4 사례연구 분석 제시

기숙형 대학(이하 RC)은 캠브리지 대학, 옥스퍼드 대학 등 유럽 명문 대학에서 기숙과 교육을 함께 병행하는 대학 문화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20세기 초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미국 주요 명문 사립대학에서 체계적인 RC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라이스 대학교, 노스웨스턴 대학교 등 신흥 명문 사립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RC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학생교육 지도 및 상담을 실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RC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후, 한림대, 경희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등에서 RC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가. 해외 기숙형 대학(RC) 사례

가-1. 캠브리지 대학교 University of Cambridge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는 1209년 설립된, 영어권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대학 중 하나다. 800년 이상의 역사와 큰 영향력으로 세계대학랭킹에서도 최고 명문대학교로 손꼽히며 약 18,000여 명의 학생(12,000명의 학부생, 6,500명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에 있다. ‘겸손·미덕·명예’를 학교 표어로 삼고 있으며, 본부와 31개의 자치대학(The College 이하 RC)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고 본부와 RC는 각기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기관이면서도 긴밀한 통합을 이루고 있으며, 시민적 교양을 달성하기 위한 독특한 교육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학부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수법 모델 중 하나로 꼽히는 RC 지도체제(소그룹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를 경험한다. 각각의 RC는 본부의 규칙에 따라 그들 스스로 학생들을 선발하며, 대부분은 학부생만큼이나 대학원생들도 선발한다. RC 대표자들은 본부 교무 위원회 및 재정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다.

종합대학(The University)은 교과 과정의 내용을 확정하고 강연, 세미나 등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RC는 학부생의 입학여부를 결정하며, RC 지도체제인 소그룹 학습지도를 책임지고, 기숙시설을 제공하며 식사와 기숙활동, 나아가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을 제공한다. 학생 입장에서 종합대학은 자신이 속해있는 RC와는 무관한 공평한 경쟁의 장이다. 자신이 속한 RC와 상관없이 같은 진로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모든 학생은

동일한 강의와 세미나 그리고 실습에 함께 참석하며, 동일한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따라서 RC 간의 차이는 교육 기회에 있는 것이 아닌 환경에 있다고 봐야 한다. RC는 학생에게 주거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곳은 먹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문적 및 신앙적 도움을 받으며, 소그룹 학습지도(supervisions)도 받는 곳이다. 각 RC는 고유한 특색이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도서관, 스포츠 시설, 학문적, 그리고 비학문적인 프로그램을 별도로 갖추고 있다.

○ 캠브리지 대학교 대표 RC : 트리니티 RC(Trinity College) 특징

RC 소속 학부생들은 소그룹 학습지도(small group supervision)를 받는다. 학습 관리자(Supervisor)는 과목 내용에 따라 트리니티 소속 선임 연구원 (Fellow) 혹은 연구조교 (Research Student)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RC 소속일 수도 있다. 학사 지도교수 (Director of Studies)는 학생들의 학업활동을 총괄하고, 강의에 대한 조언을 주고, 학습 관리자를 임명하고, 관리대상 학생의 진전을 지켜본다. 주임 튜터(Senior Tutor)는 RC의 학업과 교육 활동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개별지도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모든 학생은 개인적, 재정적 또는 학업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 상담해주는 튜터(Tutor)가 있다. 트리니티에는 주임 튜터를 포함해서 10명의 튜터가 있다. 이들은 이곳 학생들이 트리니티에서 보내는 시간을 통해 개인적이나 학업적인 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지도 시스템 스텝들 외에도 다른 학과의 동료들과 트리니티 학생회(Trinity College Students Union TCSU) 멤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다.

종합대학은 교과 과정의 내용을 확정하고 강연, 세미나 등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RC는 학부생의 입학여부를 결정하며, RC 지도체제인 소그룹 학습지도를 책임지고, 기숙시설을 제공하며 식사와 기숙활동, 나아가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을 제공한다. 약 18,000여명의 종합대학교 학생을 RC라는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원들이 상호교류하기에 편리한 거주 환경으로 운영하고 있다. RC 간의 차이는 교육 기회·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주 환경에서 주로 발견되기 때문에 RC는 학생에게 주거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곳은 먹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클럽 및 동아리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생활의 모든 면에서 소그룹 단위의 도움을 받으며, 특히 소그룹 학습지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여러 단계의 학사지도를 받기 때문에 학습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업은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은 RC의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풀면서 자신이 원하는 비교과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러한 RC 운영방식은 서양의 “놀 때는 열

심히 놓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혹은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라는 사고방식을 뒷받침 해준다고 볼 수 있다.

가-2. 프린스턴 대학교 Princeton University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는 1746년 설립되었으며, 순수학문 중심의 학부교육과 학문연구를 추구하는 종합 사립대학으로 아이비리그에서도 상위권에 속해있다.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재학생 수는 약 8,010명(학부생 5,264명, 대학원생 2,646명)이다. 총 34개의 학과와 47개의 학제연계 과정으로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총 6개의 RC에서 학부 신입생을 포함한 재학생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해당 RC 소속으로 활동을 한다. 프린스턴 대학 RC 목표는 6개의 RC를 중심으로 학업과 대학생활을 조화롭게 접목시켜 대학생활의 경험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다른 대학의 RC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자매 RC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총 6개의 RC 중 버틀러(Butler), 매시(Mathey)와 위트맨(Whitman)은 신입생 및 2~4학년 재학생과 대학원생 대상으로 기숙과 교육 지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4년 거주형이다. 나머지 3개의 RC인 월손(Wilson), 로크펠러(Rockefeller)와 포브스(Forbes)는 1학년과 2학년만을 위한 전용 기숙사로 소수의 지도 대학원생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학년 학생들의 거주는 불가능하다.

- 버틀러 RC(4년 거주) ↔ 월손 RC(2년 거주)
- 매시 RC(4년 거주) ↔ 로크펠러 RC(2년 거주)
- 위트맨 RC(4년 거주) ↔ 포브스 RC(2년 거주)

버틀러, 매시, 위트맨 RC에 거주하는 3~4학년 및 대학원생 선배들은 해당 RC에 소속된 1~2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자매 RC의 1~2학년 학생들을 지도 관리한다. 자매 RC의 2학년생이 3학년이 되어서도 RC 시스템에 머물고 싶을 경우 4년 거주형 RC에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 프린스턴 대학 RC는 자매 RC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학업 및 RC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협력을 이루어내는 동시에 각 RC만의 고유 컨셉을 만들고 차별성과 독립성을 유지한다.

프린스턴 대학 RC는 학업(Academic Affairs)과 학창생활(Student Life Affairs) 2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프린스턴 RC 체계는 1,2학년 학생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옛날 사교클럽이 있었던 시절, 학생들이 일반 기숙사에서 1년간의 시간을 보낸 후 사교클럽에 가입했던 전통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시스템은 자매 기숙사 시스템을 통해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체계이며, 기숙사에 계속 머물고 싶은 상급 학생은 롤 모델 역할을 통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프린스턴 RC 체계의 핵심은 다면적이고 다단계로 이루어진 학생지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가-3. 웰슬리 대학교 Wellesley College (미국)

웰슬리 대학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여성(Women who will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에게 최고의 학부중심교육(Liberal Arts Education)을 제공하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부 교육중심 여자대학이다. 1870년에 설립되었으며 재적학생 수는 약 2,300여명(2012년 기준)이다.

웰슬리 대학교 총장 김 버틀리(Kim Bottomly)는 학부중심교육이 글로벌 시련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믿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대의 복잡한 문제들은 단순히 지도력만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협동을 통해 다양한 관심사와 관점을 향해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지 않은 채 모든 학문을 거쳐 지식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웰슬리 교육만큼 좋은 토대는 없다.”

웰슬리 교육은 학생들이 졸업 후 “대학 밖의 세상(real world)”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최고의 준비 상태로 가꾸어 준다. 4년간 웰슬리 교육을 받은 졸업생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신이 선택한 관심분야에 의미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웰슬리의 활기 넘치는 학업 커뮤니티는 철저하게 깨문는 탐구력, 그리고 학문 간의 창의적인 사고력을 매우 중요시 한다. 학문에 대한 협력접근방식(collaborative approach)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학구적인 탁월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열정은 교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실 밖의 비교과 활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학생들은 정규학습, 비정규학습, 기숙생활, 그리고 지원·상담 체제를 통해 성장해나가며, 더 큰 포부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웰슬리 교육목표의 출발점일 뿐이다. 여성 교육의 선구자인 웰슬리는 전 세계의 자매들의 운명을 바꾸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매들린 코르벨 올브라이트 글로벌관계 연구소(Madeleine Korbel Albright Institute for Global Affairs), 데이비스 박물관(Davis Museum), 웰슬리 여성 지원센터(Wellesley Centers for Women)와 같은 교내 기관들은 모두 범세계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관들의 업적과 위신 또한 범세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학교 캠퍼스에는 동아리단체가 150개 이상 있으며 학생 주도형 클럽과 동아리단체는 매 순간 함께 생각하고, 놀고, 먹고, 웃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학기마다 수 백 개의 행사를 준

비한다. 많은 학생들은 동시에 여러 개의 활동에 참여하는데, 만약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적절한 단체가 없다면, 같은 취향을 가진 몇 명이 함께 새로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웰슬리 대학 교육 프로그램은 협동하는 학습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 간의 지적·사회적 공동체의 분위기를 구축하는데 목표가 맞추어져 있다. 입학한 순간부터 학사지도와 멘토링, 심리상담 등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여러 겹으로 구축되어 있다.

○ 학사지도와 멘토링 시스템(Academic Advising and Mentoring)

학사지도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잠재성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체계적인 지도 시스템은 평생교육으로 연결시키는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학생 스스로 자신의 경험, 가치관 정립을 통해 명확한 목적의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폭 넓은 학사지도 및 멘토링 시스템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모든 면에서 자신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

○ 상담 시스템(Counseling)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학사지도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업, 신앙, 취업, 건강 등 그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든가 상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웰슬리는 명문 학부교육중심의 소규모 대학으로서 거의 모든 학생이 RC에서 기숙생활을 한다. 신입생은 의무적으로 기숙생활을 하며, 상급생들은 4년의 재학기간 동안 주거시설을 보장받는다. 인근지역에 사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기숙생활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수업 시간에는 정규 교과목을, 나머지 시간에는 수업 준비, 동아리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방면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교수님들과 자주 만나 일 대 일 지도를 받을 수 있고, 학교 시설들을 늦게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함께 하는 공간이며, 공동체 생활에 대해 배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웰슬리 대학은 “세상을 변화시킬 여성”에게 최고의 학부중심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교육 목표를 향해 위에 설명한 교과 프로그램, 비교과 프로그램, 지도·상담 프로그램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4. 해외 RC 성공사례의 공통점

- RC 교수, 동료학생 상담그룹, 대학원생 상담그룹, 학장 및 학과장 상담 그룹 등의 복합 상담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1~4학년까지 학년별에 맞는 상담을 제공한다.
- 1~2학년은 학교생활 적응 및 전공 선택 등 학업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3~4학년은 취업 및 진학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 선배학생들과의 유대감을 증대시켜 RC 활동의 효과적인 운영을 진행한다.
- RC 소속감을 높이도록 상담 그룹을 배정하여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맞춤형 개개인의 상담을 통하여 학교생활의 빠른 적응을 지원한다.
- RC의 행정적 운영만 학교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자치생활은 학생회에 위임하여 RC의 의미를 더욱 강화시킨다.

나. 국내 기숙형 대학(RC) 사례

나-1. 연세대학교 RC

연세대학교는 2007년 원주캠퍼스에 국내 대학 최초로 RC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2010년 인천 송도에 위치한 국제캠퍼스 완공을 통하여 신입생 전체가 1년간 기숙을 하며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연세대학교 RC의 도입취지 및 목적은 우수한 교수진의 확보,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충, 우수한 학생 선발을 통한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이다. 이러한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연세대학교 RC의 비전 및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습과 생활의 통합을 통한 국제화 교육, 전인교육, 창의교육 실현
- ② 글로벌 인재의 역량(5C) 함양
 - ※ 소통능력(Communication), 창의력(Creativity), 융·복합능력(Convergence),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크리스천 리더십(Christian Leadership)
- ③ 대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가르침은 물론, 리더십과 사회봉사 정신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 ④ 배움의 장(場)인 교실에서의 전공학습을 생활의 장(場)인 기숙사 내의 다채로운 외국어, 문화,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들과 접목시킴으로써 교육의 개념을 확장

- ⑤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RC 마스터(Residential Master), RC 거주 영어전담 외국인교수(English Residential Fellow) 등의 교수진과 함께 기숙사에 상주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다문화 환경을 구축
- ⑥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키울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해 배려할 줄 아는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형성

전공간의 장벽을 허물고 국내학생 뿐만 아니라 외국학생의 교류를 통하여 다양성을 고취하고 소속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하우스 개념을 도입하였다. 단순한 거주공간의 구분이 아닌 서로 다른 형태의 하우스 개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우스마다 개성 있고 독특한 RC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삼중 학생지도 시스템(Triple Advising System)을 도입하여 전공교수, 학사지도교수와 국제 캠퍼스 RC 마스터 교수와 함께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전공교수는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로상담을 지도하며, 학사지도교수는 학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며, RC 마스터 교수는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상담을 비정기적으로 실행하여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의 빠른 전환을 돕는 동시에 대학생으로서 학교에 쉽게 적응하도록 돕는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도록 특화된 신입생 지도를 제공하는 동시에 밀착형 학생지도를 통해 대학생활 부적응 위험군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전문적 지도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RC 서포터즈(Residential College Assistant, 이하 RCA)는 2~4학년,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멘토로서 학생들의 공동체 생활을 지도하고 학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RC 공통 프로그램 및 소속 하우스 프로그램 개발, 기획, 운영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담당 학생의 상황을 정기(임시)회의에 보고하는 등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한다. 더불어 RC 마스터 교수 및 영어전담 외국인교수(English Residential Fellow, 이하 ERF)의 도우미 및 조교 역할을 수행한다.

연세대학교 RC 교육 프로그램은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을 연계하여 전인교육, 국제화교육, 창의교육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인교육은 사회봉사(Holistic Education 1, 이하 HE1), 문화예술(Holistic Education 2, HE2), 체육(Holistic Education 3, HE3)으로 세부 구분하여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도록 하였다.

〈표 7〉 연세 RC 교육 프로그램

구분	정규교육	비교과학습	개별지원
	섬김의 리더십 교양인의 자질함양	프로젝트 활동	자문시스템
전인교육	• 사회봉사(HE1) • 문화예술(HE2) • 체육(HE3)	• 공동체 인식 및 인성	
국제화 교육	• 글로벌 리더십 교육 • 외국어 집중 교육	• 문화적 다양성 체험 • RC 외국인 교수와의 비교과 활동	• 대학 영어 튜터링 서비스 (College English Tutoring Service)
창의교육	• 창의적 융·복합 교육 • 책 읽기 및 토론 교육	• 교과와 비교과 통합교육 • 거주형 학습 생활공동체 활성화 • 현장 체험형 탐구 프로젝트	• 창의적 리더 프로그램 (Creative Leader Program)

연세대학교 RC는 국내 최초로 캠퍼스 일체형으로 설립된 기숙형 대학 캠퍼스로서 신입생 전체가 1년간 기숙을 하며 교육과 배움을 수행하는 의미를 지닌다.

지난 2010년 첫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연세 RC가 얻은 가장 큰 효과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학평가지표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RC에 거주하는 신입생들은 통학시간 감소로 인하여 대학생활에서 여유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조모임, 학교과제, 연구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이는 성적 상승 등의 학업 성과의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RC 도입이후 학사경고의 전반적인 하락, 중도탈락률 감소, 기숙사 수용률 증가 등 대외성과 지표에서의 뚜렷한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 RC에 따른 교육효과는 추후에 진행 계획 있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교과과정 측면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나-2. 서울여자대학교 RC

1961년 개교를 한 서울여자대학교는 1988년 종합대학으로 개편하였고 지(智)·덕(德)·술(術)을 겸비한 기독교적 여성 지도자 양성을 설립이념으로 삼고 있다. 2013년 현재 4개의 대학원, 5개의 단과대학 및 2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재학생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바름교육관에 입관시켜 공동체 생활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생활교육 중심의 바름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이 서울여자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여자대학교의 RC(바름교육)의 도입취지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인성과 전문교육에서 얻어진 전문성을 조화롭게 갖추고, 지성·감성을 통합적으로 갖춘 여성 지도자 양성
- ② 정체성 교육, 실천 교육, 관계 교육이라는 구체적인 교육영역을 통한 서울여자대학교의 교육이념 달성

바름인성교육은 서울여자대학교가 운영중에 있는 기숙형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전교생이 입학부터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년별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을 달리하여 교육의 차별성을 두었으며 이론 수업과 현장 실습을 병행토록 하여 교육의 연속성을 추구하고 있다. 전교생 의무수강이지만, RC 교육과는 다르게 2~3주의 짧은 기간 동안 기숙생활을 하는 단기집중교육이다. 바름인성교육의 기간 및 기숙여부는 학년별로 차이가 있다. 1학년은 한 학기 내 3주간 기숙생활을 하며 총 15회 강의(대강의 5회, 중형 세미나 강의 2회, 소형 세미나 강의 8회)를 통해 1학점을 얻을 수 있다. 2학년은 두 학기 내 2주간 기숙생활을 하며 총 10회 강의(대강의 1회, 중강의 1회, 소형 세미나 강의 7회)를 끝내고 1학점을 수료할 수 있다. 그리고 3학년은 비기숙 생활을 하면서 이미 학습한 이론 교육을 실천하는 16주 프로젝트 수업이다. 이를 수료하는 동시에 1학점을 얻고 바름인성교육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게 된다.

서울여자대학교 RC 프로그램인 바름인성교육은 서울여자대학교만의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공동체 생활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50년간의 효과적인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전인교육을 달성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편성된 계단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체험학습을 실시하는데 있어 바름인성교육만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도 함께 병행하여 바름인성교육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의를 띄고 있다. 1961년 처음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교육 환경의 변화는 프로그램 내용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바름인성교육이 추구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는 유지되고 있기에 이는 서울여자대학교의 건학이념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숙형 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학 문화를 구현하고 사회 수요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생활공간과 교육공간을 일원화하여 공동체 교육 및 전인교육의 장을 마련하려는 목적의 RC기숙사의 취지에는 주거기간이 너무 단기적이며, 물리적인 RC공간차원에서도 RC로서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3. 이화여자대학교 RC

이화여자대학교는 1886년 스크랜턴 부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인 1887년 고종황제가 교명을 이화학당이라 이름하였다. 이후 1945년 이화여자대학교로 종합대학 인가를 받았다. 2013년 현재 총 11개의 단과대학과 16개의 대학원이 있으며 학부생 약 15,000여명, 대학원생 약 5,000여명으로 총 20,000여명의 재학생이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매년 400여명의 학생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36개국 315개의 학교로 파견하여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다음 취지를 바탕으로 현재 RC를 추진 중에 있다.

- 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학부교육 모델 구축의 필요성
- ② 창의적 인재양성
- ③ 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 양성
- ④ 국제적 소양을 가진 인재양성
- ⑤ 사회 통합형 교육 실시

이러한 배경을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가 달성하고자 하는 RC의 비전과 목표는 아래와 같다.

- ① 미래 글로벌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학습·생활 공동체’구현
- ② 학습·생활 공동체로서 교육과 생활의 경계를 허물고 밀착형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미래 글로벌 여성 리더 인재를 육성
- ③ 전인적 핵심 역량을 갖춘 이화형 인재 양성
- ④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함양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RC의 기본 컨셉은 ‘패밀리(이하 가족)’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기존 기숙사 형태에서 볼 수 없었던 ‘가족’ 개념을 도입하여 신입생과 재학생과의 관계 강화를 통하여 첫째, 학교생활의 빠른 적응을 통한 이화 가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둘째, 선배 재학생과의 교류를 통한 학업 활동의 강화, 셋째, 다양한 비교과 활동의 공동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 제고가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1학년 전원 기숙(의무기숙기간 : 1학기)을 통하여 이화 RC만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마련 중에 있다.

이화 RC 조직의 특징은 총 8개의 학당을 신축하여 한 학기 당 신입생 1,600여명이 거주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학당 1개의 구성원은 학당장(RC Master)을 맡는 교수 1명, RCA³⁾ 20명, 신입생 400명이다. 기숙하는 신입생은 첫 학기에 200명, 나머지 200명은 차 학기에 기숙을 하게 되나 소속은 입학 때부터 정해져 있어 RCA 지도하에 RC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RCA 1명이 학생 20명을 이끌며, 학당장은 한 학당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맡는다. RCA 1명이 이끄는 20명이 한 모듬이 되는 구조이다.

이화 RC 건축은 ‘가족’개념을 도입하여 기숙생활을 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컨셉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도 학생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간으로 1인실을 기본적으로 하며 나머지 공용공간(화장실 및 거실)을 넓게 하여 학생들의 교류활동을 촉진시킨다. 6인6실 또는 8인8실로 sub-unit을 구성하며 sub-unit⁴⁾ 3개가 모여 하나의 모듬을 완성한다.

주요 RC 시설로는 영화관, 체력단련실, 트랙킹 코스, 스쿼시 및 배드민턴, 탁구, 음악실, 미술실, 중대형 세미나실, 동아리실, 휴게실, 컴퓨터실, 도서관, 기타 부대시설(400명 규모의 식당, 세탁실, 간이 취사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화여자대학교 RC는 갓 새로 시작한, 제1차 시범사업을 완료한 RC이기에 그 효과 및 결과에 대해서 단정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여자대학교 RC는 내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RCA 활동 및 제1차 시범사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시범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다고 한다. 국내 여자대학교로는 최초로 시작된 이화여자대학교 RC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모든 RC 교육 활동이 RC 건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시설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RC 시설을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 사이의 교류를 더욱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RC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바탕으로 학내 활동에서 끝내는 것이 아닌 외부 활동까지 연계시켜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하는 것이다.

셋째, 학과 지도교수와 RC 마스터 교수의 학생지도를 통한 이화 이중 관리 시스템(Dual Care System)의 구축이다. 이중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 관련 상담은 교과과정 지도교수 또는 전공 교수에게 전담하고, 진학 및 취업, 학교생활 등에 대한 상담은 RC 마스터

3) RCA란 Residential College Assistant의 약자로 2~4학년 또는 대학원생이 맡고 정해진 학생들과 수시로 교류하면서 학생들의 공동체 생활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4) unit란 학생 숙실의 조합 단위를 말한다.

교수 및 RC 지도교수가 담당하여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빠른 학교생활의 적응을 도와주고 학생들이 진학 및 취업에 있어 보다 이르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RC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보다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본격적인 RC가 도입된 대학은 연세대학교이지만 아직까지도 시작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성과를 확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RC는 생활공간과 교육공간으로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개인주의가 강한 학생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 더불어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를 배양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RC는 기존의 단순 주거 공간으로만 사용되어 왔던 기숙사와는 달리 학생들이 공동으로 생활 체험과 교과과정을 벗어난 다양한 대학생다운 지적 자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활과 교육의 일체 공간과 교육프로그램을 융합한 차별된 교육 시스템이다. RC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대학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더불어 신입생부터 조기에 진로설계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성공적으로 RC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이념에 맞는 차별화된 RC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필요한 다양한 RC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RC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의 건학이념, 교육철학, 교양교육 비전에 기반을 두고 교과·비교과, 이론·실천을 연계하는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통합적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바람직한 RC 모델은 미국의 학부교육중심인 Liberal Arts College식의 강의 형태를 도입하여 대형 강의와 소규모 튜터 토론을 병행하며 강의에 의존하는 주입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학생 주도적 교육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전공에 상관없이 인문·사회·자연·예술 등의 2개 이상의 분야를 융·복합하여 교과목을 개발하여,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분야를 아우르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개진하고 토론하는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의식과 해결 능

력을 함양할 수 있는 RC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RC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인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주도적·능동적 참여가 필수적이며, 특히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주도형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시설부문에 있어서도 RC기숙사는 기존 기숙사 건축과 달리 기숙사내에 RC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RC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기존 학내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일부 기능은 중복되더라도, 특정 시설은 반드시 RC 교육 프로그램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숙사 공간 내에 배치함이 바람직하다. 주요 RC 공간으로는 학생거주공간 이외에 RC 관리지원 공간과 RC 복지지원 공간, RC 학습지원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RC 관리공간은 RC 사생들 외 서포터즈와 마스터 등의 주거공간과 RC 프로그램 관련 강사연구실, 행정실, 회의실 등 행정/연구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RC 복지지원공간으로는 휘트니스센터, GX룸(요가 등), 스쿼시룸, 각종 상담실(건강, 취업, 심리, 적성 등), 기초 체력측정실, 다용도 실습실, 클럽룸 등을 둘 수 있고, RC 학습지원 공간으로는 강의실, 세미나실, 시청각실, 멀티미디어실 등을 둘 수 있다.

5-2.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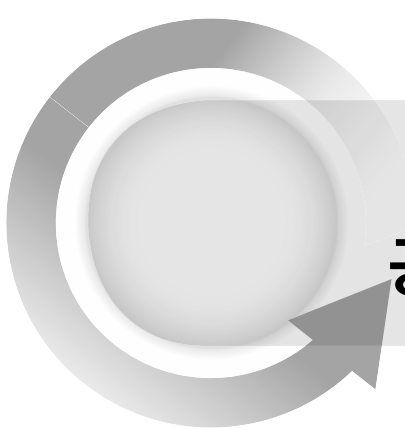
- 해외 대학 RC의 경우 지리적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거주를 해결해야하는 반면에, 국내 대학의 경우에는 부모와 거주하며 통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강제성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을 수용하는 RC 형태가 국내대학에서는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RC에 대한 학생참여와 RC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외국의 경우, 대학생은 학비 및 생활비를 자력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에는 부모님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RC에 따른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의 몫이 된다. 따라서 RC기숙사 입사생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장학제도 개발, 아르바이트 소개, 튜터제 활용, RC 어시스턴트 도입 등 RC 참여학생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대학차원에서 RC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확보 및 재원조달방안이 필수적이다.

〈그림 4〉 이상적인 한국형 RC 모델



- RC기숙사의 생활공간은 공동체 생활을 통한 사회성을 제고한다는 RC 취지에 맞게 독립된 침실 외에도 별도로 거실공간을 두어 팀프로젝트 등이 가능한 다인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원공간은 복지(휴게실, 체력단련실, 세탁실 등) 및 편의시설(매점, 카페, 식당 등)을 기본으로 하여 학교별 필요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RC 공간은 강의실, 세미나실, GX룸, 분임토의실, 스터디룸, 다목적실, 각종 상담실, RC 강사연구실, RC 운영지원실, RC 행정실 등으로 구성하되, RC 건축비용이나 운영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기존 대학시설도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RC기숙사의 성공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계단계부터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RC건축과 시설에 대한 초기투자비용은 다른 일반기숙사보다 더욱 많은 초기투자비용과 유지비용이 소요될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일반기숙사에 비해 RC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규모 재원조달방안이 필요하며, 대학과 학생의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RC기숙사 도입이 용이해야 한다. RC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행복(공공)기숙사의 지원방식이외에도 새로운 개념인 RC기숙사의 특징을 고려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향후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Ⅲ

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공공기금 직영기숙사 추진방안

박환일 경희대학교 교수

주제발표Ⅲ

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공공기금 직영기숙사 추진방안

박현일 경희대학교 교수

 1 서론

한국사학진흥재단(KFPP)은 대학생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기숙사 건립·운영을 지원해 왔으나 더 많은 학생들의 기숙사 수용 및 기숙사비의 인하 등 재단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KFPP가 직접 기숙사를 건립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운영(BOO)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의 근거를 재단법에 마련하는 한편 관련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숙사 관리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업체와의 협력관계(PPP)를 공고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립대학이 민자를 유치하여 건립·운영하는 기숙사는 공급량이 적은 데다 이용료가 비싼 편이어서 학생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민자기숙사는 소유권은 학교에 있지만 관리·운영권은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가 갖고 사용료를 받는 BTO방식으로 건설되기 때문에¹⁾ 기숙사의 건설·운영비용이 기숙사비로 전가되는 실정이다.

KFPP는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지원 하에 학생들의 높은 주거비용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BTO 방식의 민자사업을 원용한 행복기숙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행복기숙사는 공공 및 연합기숙사 사업으로 구분되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임에도 민자사업방식을 택하고 있고, 용자방식의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기숙사비 인하에 한계가 있다. 오히려 기존 대학부지에 실행하는 민자기숙사와 달리 부가가치

1) 박현일,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2010, 2쪽.

세, 취·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납부 대상이다. 행복기숙사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정사업이며, 교육목적의 공익사업이므로 기숙사 건립 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와 지방세에 면세를 적용하고 지방세를 비과세하는 등 대학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

KFPP가 행복기숙사의 직영방식을 검토하는 이유는 국정과제인 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행복기숙사의 기숙사비는 융자원리금의 상환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 필요비용만을 고려하여 책정되었으므로 기숙사비를 국정과제에 맞게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외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내지 사업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2 KFPP의 직영기숙사 사업의 필요성

1. 행복기숙사의 문제점과 현황

행복기숙사 사업은 공공기숙사와 연합기숙사로 진행 중이다. 행복(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은 KFPP와 학교법인이 각각 50%씩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기숙사를 건립하고 대학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며, 최장 28년간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구조이다. 행복(연합)기숙사는 행복(공공)기숙사와 동일하게 KFPP가 SPC를 설립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부지제공자인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행복(공공)기숙사 건립은 민자사업 방식 중 BTO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공적인 기숙사 운영을 위해 기숙사 운영을 담당하는 SPC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³⁾ 행복(공공)기숙사의 경우 KFPP와 학교법인 각각 50%씩 출자하여 설립한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 행복(공공)기숙사 사업방식과 일반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다른 민자사업 방식에는 세제상 혜택에

2) 행복기숙사비는 20만원 수준으로 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서는 일반기숙사비에 비하여 저렴한 편이지만 지방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이 지방대학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금의 지원조건 완화 및 지자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손 윤 외, 「사립대학 행복기숙사의 세제개편을 통한 기숙사비 인하방안 연구」, 한국사학진흥재단, 2013, 46쪽.

3) 박현일, 앞의 보고서, 2쪽.

차이가 없다. 이런 연유로 KFPP를 통한 행복(공공)기숙사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행복(연합)기숙사는 건립 및 운영에 있어서 앞의 행복(공공)기숙사와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만, 기숙사 건립□운영을 담당하는 SPC를 KFPP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는 점과 건설된 기숙사의 소유권이 대학 아닌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⁴⁾

2. 직영기숙사 운영의 필요성과 리스크 요인

행복기숙사 사업은 KFPP가 공적기금을 조달하여 이를 사업자(SPC)에게 용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용자원리금을 기숙사비에 포함시켜 회수하기로 한다면 기숙사비는 일정금액 이하로 낮출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의 경우 공공기금 용자를 통해 기숙사를 건립하고 시설의 소유권은 부지 소유자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소유가 된다. 그런데 국가·지자체 소유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조달을 위한 대출원리금을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가지고 그 상황에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기숙사비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

행복(연합)기숙사는 인근의 여러 대학 학생들이 기숙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숙사 건립 부지가 부족한 대학의 경우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다만, 기숙사는 학교가 투자해야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사시설 중 지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부지를 활용하고, 공공의 자금으로 연합기숙사를 건립하게 되어 대학교의 지원 역할은 크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기숙사비 인하를 위하여 대학이 자부담 비중을 확대하거나, 공적기금의 용자조건 완화 등 공공지원의 확대를 도모하도록 한다. 예컨대 공적기금의 이자율 인하나 기간연장 등 대출조건의 완화를 통해 기숙사비의 인하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행복기숙사가 SPC를 만들고 민자사업의 방식(BTO)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배후의 사업시행자가 원리금 상환책임을 지지 않게 하려는 비소구금융(non- or limited recourse financing)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행복기숙사의 경우에는 그보다도 기숙사 건립·운영을 KFPP의 다른 기금운용 사업과 구분하고 해당 기숙사의 재정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정과제의 달성과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앞서의 사업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4)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연합) 지원사업, <http://www.kfpp.or.kr/02_fin/09_10.asp>.

행복기숙사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SPC가 사업주체가 되므로 민간법인으로 판단되어 공공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세제상의 혜택이 없고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납부 대상이다. 행복기숙사는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은 일반적인 민자사업만도 못한 실정이다. 대학이 사업주체로 참여하여 공공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인 행복(공공)기숙사에는 부가가치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면제받지만, 행복(연합)기숙사는 사업주체에 학교법인의 참여가 없이 재단만이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책으로 기숙사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와 지방세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부여하여 기숙사 이용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⁵⁾ 이러한 세법개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KFPP가 100% 출자하고 실질적 운영도 담당하는 현실에서 비소구금융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SPC 구조를 배제하고 KFPP가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KFPP가 기숙사를 직영하는 경우 무슨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존 행복기숙사의 재무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직영기숙사의 경우 절감 가능한 기숙사 비용은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SPC가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과 둘째, KFPP가 기숙사 부지 및 건립비용을 직접 부담함으로써 기숙사 관리비를 상당 폭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KFPP 직영을 통한 세금절감은 비영리 공익법인인 KFPP가 기숙사를 직영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지방세가 면제가 된다. 기존 행복(연합)기숙사는 SPC가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므로 이를 기숙사생들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직영기숙사의 경우 KFPP가 입주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단계와 기숙사 건설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바 이것이 면세되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KFPP가 기숙사 부지 및 건립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의 기숙사비 절감 효과이다. 행복(연합)기숙사는 부지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건립비용은 공공기금을 용자로 지원하여 기숙사비의 인하를 추구한다. 그러나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의 확보가 어려워 차라리 부지의 매입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의 사업구조(SPC) 방식에서는 부지매입에 필요한

5) 손 윤 외, 앞의 보고서, 55쪽.

재원은 공공기금(용자)이므로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숙사비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비용 외에도 부지매입 및 시설의 건립에 사용된 공공자금의 상환원리금이 포함되게 되므로 현재의 사업구조에서는 기숙사비의 인하에 한계가 있다.

KFPP가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직영으로 기숙사의 건립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부지매입 및 건립비용이 기숙사비에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단이 직영하므로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재단으로 귀속되며, 관련 비용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숙사비에는 최소한의 시설관리비만을 책정할 수 있다. 현재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의 사업비 구성내역으로 보면 재단이 직영을 통해 기숙사 건립 시 최대 45%의 기숙사비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3. 직영기숙사의 위험요소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인 KFPP가 기존 행복기숙사 사업처럼 SPC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기숙사를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는 무엇이 있는가. KFPP는 그 설립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을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이며, 설립자가 정해진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으로서 자주적인 의사결정기관을 두고 있지 않다. KFPP가 사단법인도 아니면서 여러 곳에 직영기숙사를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으려면 관련법령 및 정관으로 미리 정해 놓고 기숙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KFPP가 직영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당면하게 되는 위험요소는 재단의 기금이 현금이 아닌 고정자산(부동산)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현금성 자산이 부동산 같은 고정자산으로 변형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부동산 가치의 변동 가능성이다. 부동산 가격이 항상 오르는 것만은 아니며 건물의 노후화로 감가(減價)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 그 밖에 KFPP가 기숙사를 직영하는 경우 우려되는 사태는 장기적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과, 기숙사 안팎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소유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KFPP가 기숙사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사고에 대해 소유자로서의 무한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상 논의한 것을 토대로 KFPP가 종전과 같이 SPC를 설립하지 않고 공공기금을 가지고 직영기숙사를 건립·운영하기로 했을 때의 장·단점과 문제점,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기숙사 직영에 관한 KFPP의 SWOT 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 기숙사 공급을 늘리고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BTL/BTO 사업수행 경험이 많음 - SPC의 출자자로서 그 장·단점을 잘 알고 있음 - 컨설팅·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음	-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활동의 한계가 있음 - 재단법, 정관 등의 제약이 엄격하고 교육부와 감사원의 업무감독, 예산·회계·직무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음 - 직접 수익사업을 취급할 수 없으며, 교육부의 인·허가를 요함 - 운영상의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음
기 회 (Opportunity)	위협요소 (Threat)
- 경향 각지 대학교의 행복(공공)기숙사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큼 -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업무의 대부분을 아웃소싱할 수 있음 - 모범이 되는 관행(best practice)과 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음	- 업무를 외주 위탁하는 경우 통제가 어려울 수 있음 - 직영기숙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떠안을 수 있음 - 비용절감을 강조한 나머지 '깨진 유리창' 현상으로 시설이 후폐해질 수 있음 - 영리를 추구할 수 없어 수익증대와 조직발전을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없음

3 직영기숙사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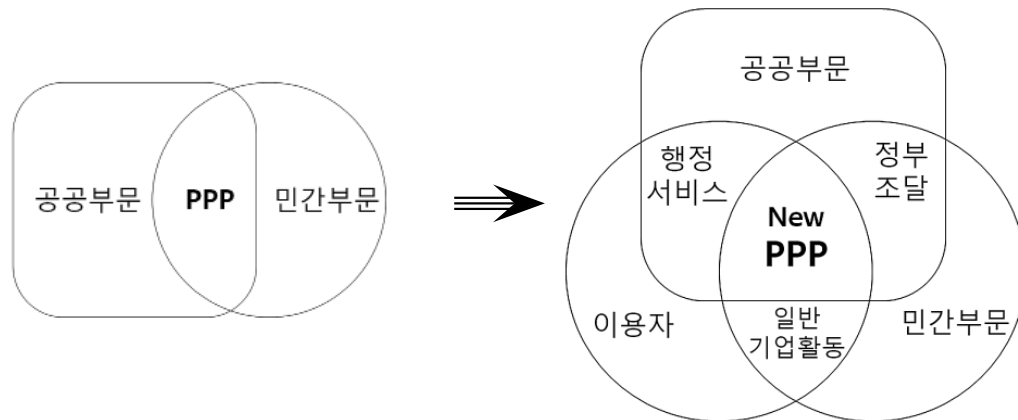
1. 행복기숙사 사업방식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

KFPP가 행복기숙사의 기존 사업방식이 과연 최선책이었는지 재고(再考)를 요한다.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SPC를 만들고 민간투자법상의 BTO/BTL방식을 적용하였으나, KFPP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SPC가 오히려 비용증가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본래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재정으로 건설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기 위해 민간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민관협력(PPP) 사업은 최근 들어 새로운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민자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 사업비의 회수를 보장해야겠지만 시설·서비스에 대한 이용료의 과도한 인상,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등이 이용자나 정부·지자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⁶⁾에는 공공부문이 이용료 책정이나 운영수입의 보장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⁷⁾ 사실 민관협력 사업에 있어서 처음에는 정부재정의 한계로 민자사업자를 유치하고 사업비의 회수를 보장해주는 데 급급하였지만, 민자시설·서비스의 이용료에 대한 이용자의 반발이 거세고 장기적으로 국가·지자체에 대한 재정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부문이 다시 활동영역의 폭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자기숙사 사업에 자금을 공여하는 데 그쳤던 KFPP 역할에도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BOT, BOO 같은 PPP 사업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운영비용의 절감이나 세금 부담 측면에서 기숙사비의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KFPP로서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외에도 민간사업자와 협력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나아가 재단법인인 KFPP의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공공성의 발휘와 함께 어느 정도 기금운용의 재량을 가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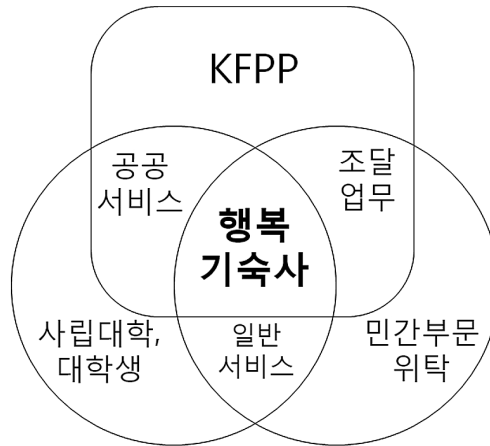
〈그림 1〉 민관협력(PPP) 사업의 새로운 전개



6)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한 인프라 시설 중에서 근자에 관할 지자체와 마찰을 빚은 사례로는 광주 제2순환도로,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이 있다. 2건 모두 소송으로 이어져 민간사업시행자의 주주가 교체되었고, MRG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7)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민자사업(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에 대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해 2000년에 마련한 입법지침(Legislative Guide)과 권고(Recommendations)에 따르면 제46항과 제47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권고 46. 관계법은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권고 47. 사업시행자의 수수료 또는 이용료가 감독기관의 외부통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계법은 정기적인 또는 임시의 수수료 조정공식에 관한 메커니즘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림 2〉 행복기숙사에서 민관협력(PPP)



2. 행복기숙사의 사업방식 및 검토사항

KFPP가 직영기숙사를 BOT/BOO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차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민간투자법 상의 사회기반시설에는 도로, 철도 등 총 48개 시설이 있는데 행복기숙사가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에서는 민간투자법 제4조를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사학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행복(공공)기숙사는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조목인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 해당되는 부동산이다. 즉 행복(공공)기숙사는 BOT 방식으로 학교부지 내에 건립되어 학교의 교육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행복(연합)기숙사는 학교 부지 밖의 국공유지에 건립하고 여러 대학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시설로 볼 수 없으며, SPC도 학교가 아니므로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7항 제1호의 설립주체(학교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BOT 방식의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민간투자법의 BOT 방식은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의 혜택이 있다.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BOT 방식은 건설·소유·운영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부동산 취

득세·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BTO, BTL, BOT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⁹⁾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국가·지자체가 시설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기부자(KFPP)에게 시설사용 수익권 내지 시설관리운영권을 제공하는 바 현재 KFPP가 흥제동에 건립하고 있는 행복(연합) 기숙사도 이러한 법령에 의거한 것이다. 현행 재단법으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¹⁰⁾의 BOT 방식의 기숙사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민간투자사업 중 BOT 방식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지방세법」에 의하여 정부에 부동산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는 기숙사 건립비용을 낮출 수 있으므로 기숙사비 인하 효과가 있다. 동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BOT 방식으로 행복기숙사를 건립한다면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아 기숙사비용이 인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직영방식은 KFPP가 사업주체가 되어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률적 제약은 없다. 행복(연합)기숙사의 경우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책임경영이 가능하다는 것과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가 됨에 따라 기숙사비 책정 시 토지 및 건물의 건립비용을 기숙사비에 전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직영방식은 추가적인 관리조직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일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직영방식은 관리책임이나 책임소재가 명확하며 KFPP가 모든 책임을 지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기숙사 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운영주체의 기숙사 운영의 취지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 기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임기응변적 조치가 가능한 점이 특색이다.

재단법상 직영기숙사를 시행하기 위해선 제6조(사업)와 제19조(기금의 사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6조에는 기숙사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숙사 사업을 진행

8) 국유재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9)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중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0)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하기 어렵다. 또한 제19조에도 기숙사 건립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각각의 법조항에 대한 확대해석을 하여 공공기숙사 사업을 진행하거나 해당 법조항의 개정의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기숙사 직영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토지 및 건물의 건립비용을 기숙사비에 전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행복(연합)기숙사는 건물의 건립비용이 용자로 지원되는데 기숙사비의 수납을 통해 건물의 건립비용을 전액 회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건물을 KFPP의 자산으로 인정할 경우 건물의 건립비용의 회수가 불필요하게 되어 기숙사비는 최소한의 관리비 수준이 될 것이다. 추가로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비과세로 기숙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3. 직영기숙사에 대한 법률 검토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을 그 구성요소가 사원(사람)이나 또는 재단(재산)이나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뉜다. KFPP는 1989년 3월 「사학진흥재단법」을 제정하고, 1989년 11월 주무관청(교육부)의 설립허가를 받았다(정관 부칙 제1조). 이후 법원의 등기를 거쳐서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하고 있다(재단법 제1조).

KFPP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인법인으로 판단된다. 학술·종교·자선·기에·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법상 KFPP의 지위를 살펴본다면,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따르게 된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은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KFPP는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5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KFPP가 SPC를 설립하지 않고도 직영기숙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거는 재단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그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 재단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며 「민법」 제34조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법무법인 퍼스트의 법률의견). 아울러 기숙사 사업

이 재단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관이 정한 목적의 범위 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KFPP가 직접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KFPP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기숙사 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은 재단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았다. 실무상 논거로서는 대법원 판결(대판 2007.1.26, 2004도1632)을 통해 「민법」 제34조의 법인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과 재단법 제1조와 제6조, 제19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법무법인(유) 새한의 법률의견).

다음으로 KFPP가 기숙사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다는 논거는 첫째, KFPP가 직접 공공기숙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제19조의 기금사용 용도에 공공기숙사 사업을 신설하는 것 외에 제6조 제1항의 목적사업에 공공기숙사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정부법무공단의 법률의견). 이는 재단법 문제의 규정「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는 공공기숙사 사업을 포함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재단법이 개정되어 기금의 사용 용도에 공공기숙사 사업이 추가된다면 동 규정에 「기금을 투자하여 수행하는 공공기숙사 사업」이 포함되어 공공기숙사 사업이 재단의 목적사업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학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건대, KFPP가 SPC를 통하여 BTO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재단법 제19조 제4호에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동법 제4조 제4호가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BTO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KFPP가 행복기숙사의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기숙사시설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4호의 BTO 방식에 해당하므로 재단법 제19조 제4호가 허용하는 기금의 사용처라고 볼 수 있다(법무법인 퍼스트의 법률의견).

반대로 KFPP의 행복기숙사 사업에 사학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논거는 재단법 제19조 제4호에 기금사용처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법률의견들도 KFPP가 추진하고 있는 제19조 제4호의2로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숙사 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법무법인(유) 세한 및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의견).

이상을 종합하면 KFPP가 기존 행복기숙사 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기숙사비의 인하에 있다. KFPP가 그 동안 SPC를 선호했던 까닭은 재단법상 KFPP의 사업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민자를 유치하는 프로젝트 금융의 특성상 비소구금융 목적의 SPC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행복기숙사 사업은 SPC를 통하여 수행하는 결과 SPC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재단이 직접 기숙사를 건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목적의 공익성과 수단의 정당성의 관점에서 KFPP의 직영기숙사 사업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재단법 상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이 정당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적법하게 사단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당에 꼭 재단법인인 KFPP가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組織이기주의’로 비칠 공산이 크다. 「민법」 제34조의 재단법인의 권리능력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대판 2009.12.10, 2009다63236 등)도 재단법인보다도 사단법인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기에 본건 KFPP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기숙사 건립에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로 하고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재단법인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KFPP가 국·공유지에 기숙사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문제를 살펴본다. 「국유재산법」 제18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고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설물의 기부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 취득에 장애가 있다는 견해는 좀 더 검토를 요한다.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KFPP가 직영기숙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단법 제6조와 제19조를 각기 개정하는 것을 요한다. 이미 기숙사 사업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참고하였다. 그러나 사학진흥이라는 KFPP의 본령을 지키고 기존 사학기관의 재산관리 등의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장학재단법의 그것과는 운영을 달리 하고 있다.

첫째, 제6조의 사업에 “사학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의 설치·관리”를 추가한다. 사학기관 등의 요청을 전제로 한 것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KFPP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제19조에 규정을 신설하여 직영기숙사를 위해 사학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사학진흥기금은 용자로 대학법인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든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통해서 대학에 간접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사학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기숙사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재단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며, 사학진

흥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위의 기숙사 사업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때 KFPP가 기금을 사용하는 만큼 정부 및 지자체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재단법 제16조의 개정을 요한다.

〈표 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위탁(管理委託)된 사학기관의 재산관리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의2. 사학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의 설치·관리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현행과 같음) (“) (“) (“) (“) (“) 신 설 (현행과 같음) (“)
제16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국유재산 →
제1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의2. 사학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숙사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공유재산 (현행과 같음) (“) (“) (“) 신 설 (현행과 같음) (“)

4 직영기숙사의 효율적 운영방안

1. 민간위탁을 활용한 직영기숙사 실행 방안

KFPP는 직영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적기금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대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직영기숙사의 위탁은 KFPP가 효과적인 기숙사 운영을 위해 관리업무 중 일부에 대한 사항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KFPP의 직접 운영은 KFPP의 직원이 파견되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입주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선 많은 직원들의 채용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인력증원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 방식은 채택 곤란하다. ② 전부 위탁은 직영기숙사의 일반 업무와 고유 업무 모두를 포함하여 관리·운영을 계약하는 경우이며, ③ 일부 위탁은 일반 업무와 고유 업무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계약하는 경우이다. 전부 위탁을 한다면 직영의 의미가 사라지고 현재의 SPC를 통한 방식과 별 차이가 없어진다.

가장 효율적인 민간위탁 방안은 일부 위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위탁은 업무의 수행강도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에 위탁하는 것과 일의 단순성을 고려하여 외부에 위탁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KFPP 직영기숙사 운영은 일부 위탁을 활용하여 기숙사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KFPP는 일부 위탁을 통하여 인력절감, 비용절감, 업무집행의 신속성, 기숙사 서비스 품질 향상,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외부 전문성 활용, 직원의 업무 경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KFPP가 직접 직원을 파견하여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지속성 측면에서 유리하나, 인력의 파견이 여의치 않다면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운영 전문회사를 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위와 같은 민간위탁의 근본 목적은 KFPP가 민간 기업이나 비영리조직과의 외부계약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입주대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공급은 KFPP가 부담하지만, 주된 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것이다. KFPP가 위탁자로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표 3〉 KFPP의 직영기숙사 위탁 방안

유 형	내 용
전부 위탁	• 기숙사와 관련된 모든 관리·운영을 민간 업체와 계약
일부 위탁	• 일반 업무와 고유 업무 중에서 일부를 위탁 계약 • 일부 위탁은 기숙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가운데 전문성이나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이를 외부 전문인력에 의존하는 것임 • 그 유형으로는 업무의 수행강도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에 의뢰하는 것과 일의 단순성을 고려하여 외부에 의뢰하는 것으로 구분
KFPP의 운영방안 (일부 위탁)	• 기숙사 관리를 일부 위탁 • 위탁업체로부터 당일 업무보고를 받아 총괄적 관리

2. 직영기숙사 민간위탁의 운영 제안

KFPP 공공기숙사 사업은 다양한 사업주체(정부기관·학교법인)의 참여를 하고 있지만 총체적인 관리자는 KFPP이다. KFPP가 기숙사 관리본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숙사 관리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 건립될 공공기숙사들도 기숙사 관리·운영(O&M)을 담당하는 부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표준화된 관리·운영을 해야 한다. KFPP는 기존 행복기숙사의 SPC 출자 및 자금대출 방식 일변도에서 벗어나 직영방식의 기숙사 건립·운영으로 전환하면서 기숙사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표준화를 모색하도록 한다.

KFPP는 O&M의 통일, 표준화 매뉴얼의 제작 및 교육 등 기초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 캠퍼스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공공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에는 참여 대학교간의 통학거리 문제, 기숙사부지 활용에 따른 추가비용의 발생 등 비정형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수익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화 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의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기숙사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기숙사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저렴한 지자체 기숙사 이용료의 부과가 가능한 것은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지자체에서 대부분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장학금 형태로 지급해 왔거니와 현금을 부동산 형태로 전환시켜 수십 년간 지역사회 인재발굴을 위하여 운영해 왔다. 이러한 지방학숙은 서울에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타향에서 공부하는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향후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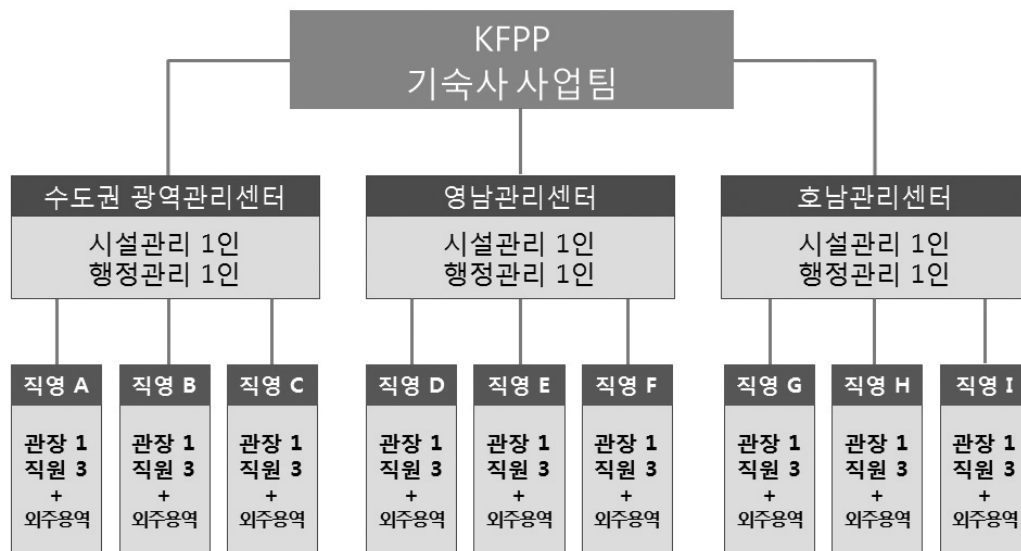
이 밖에 필요하다면 KFPP는 공적기금으로 건물을 건립하고, 입주생들의 사용료로 기숙사를

관리·운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숙사 유지보수비(수도광열비 포함) 등을 상당히 절감하여 운영 하는 것을 요한다.

한편, KFPP의 직영기숙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광역 관리체계의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숙사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입주생의 관리서비스 요구수준이 다양화, 고급화(차별화) 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는 관리체계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기숙사별 관리체계에 따른 관리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및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서는 관리방식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기숙사 대규모 관리물량의 증가에 대비한 경제적 관리체계 실현을 요한다.

〈그림 3〉 직영기숙사 관리체제 예시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KFPP의 직영기숙사 운영은 관리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광역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KFPP의 광역 관리체제는 기숙사 공급에 따른 관리체계인 개별적 기숙사 전담제가 아니라 기숙사 유지관리와 다른 건물 소유자로서의 업무와 입주생 생활관리의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공급 및 관리주체인 KFPP가 직영 관리하는 공공기숙사들에 대한 광역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기숙사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3. 직영기숙사에 대한 세법 검토 및 대안

행복기숙사 사업은 부가가치세와 지방세(취·등록세,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직영기숙사 운영 시에 비과세 되는 세목을 분석하여 기숙사비 인하를 꾀할 수 있을지 판단이 필요하다. 먼저 기숙사 건설단계의 부가가치세는 시공사가 KFPP에게 기숙사 건립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되며, 기숙사 운영단계의 부가가치세는 KFPP가 입주대학생에게 직영기숙사를 제공할 때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KFPP)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즉, 국가나 지자체, 비영리기관, 아파트관리주체 등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는 KFPP가 기숙사 부지 및 건설된 기숙사를 취득할 때 과세된다. 그러므로 부가치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세제개선이 필요하다. 비영리 법인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KFPP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① 기숙사 용역의 제공단계(KFPP→대학생)의 과세 여부는 V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면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② 기숙사 건설단계(시공사→KFPP)에서의 과세 여부는 해당 조항이 없으므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국세청은 자산관리공사(KAMCO)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 관리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국세청 법규부가 2011-511). 「국유재산법」상 총괄청(기획재정부)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총괄청에서 관리하는 사학진흥기금 역시 그 사용 목적에 대하여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세는 KFPP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숙사를 건립하여 직접 운영하다가 일정 기간 후 이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BOT방식)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취·등록세가 비과세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KFPP의 직영기숙사 관련 과세 문제

세 목	부과 단계
부가가치세 과세	① 기숙사 용역의 제공단계 (KFPP→대학생) ② 기숙사 건설단계 (시공사→KFPP)
지방세 과세	KFPP가 기숙사 부지 및 건설된 기숙사 취득

KFPP가 직접 기숙사 부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이 같이 취·등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한다. 판례는 기부채납의 개념을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무상 기증만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동산(토지)을 국가나 지자체에 공여하면서 인허가 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의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의정부지판 2011.11.15, 2011구합1332). 이에 따라 BTO 방식으로 공공기숙사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기숙사 부지를 매입한다면 「지방세법」 제9조 부동산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비과세될 것으로 본다.

〈표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8.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사학진흥기금	(현행과 같음) (“) (“) (“) (“) (“) (“) (“) 신 설

주: 기존 제8호의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한국산업은행과 통합하기로 하였으므로 삭제하였음

5 요약 및 결론

KFPP가 지금을 지원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기숙사는 한결같이 KFPP가 주도하여 SPC를 설립하고 있으며, 기숙사 부지를 제공한 학교 또는 지자체에 기숙사 준공 즉시 그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와 같이 SPC를 만드는 이유는 민자사업의 경우 비소구금융의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재단법인인 KFPP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인적·물적 부담 없이 해당 기숙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숙사의 건립 및 운영단계에서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KFPP가 기숙사 사업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SPC를 설립하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행복기숙사 사업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 민자사업 방식과 마찬가지로 세제상의 혜택이 별로 없는 데다 그 파트너가 민간사업자나 학교, 지자체인지 여부에 따라 관리·운영방식이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영리 법인 이면서 공익성을 띤 KFPP가 기숙사 건립주체가 되어 세제혜택을 받아 반값등록금과 같은 맥락의 월 10만원 대 기숙사비를 달성하려는 직영기숙사 사업을 추진하게 이르렀다.

KFPP로서 기숙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기숙사 사업의 근거를 재단법에 마련하는 한편 정부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공사가 그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것처럼 KFPP도 정부기금을 가지고 기숙사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단법 및 세법 개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특히 세법의 경우 법 개정 자체가 난망시된다면 그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KFPP가 자금을 지원하는 행복기숙사의 사업주체를 반드시 SPC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둘째, 기숙사를 준공하는 즉시 학교 또는 정부·지자체에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기부채납을 하는 것도 재고를 요한다. 우리나라의 민자사업이 준공 즉시 소유권을 양도하는 BTO, BTL 방식으로 행하여진 것은 처음부터 도로, 교량 등의 시설물이 대부분 국가명의로 취득해야 하는 SOC시설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경상적인 기숙사 관리비를 좀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문업체에의 아웃소싱, 광역 관리체제의 구축 등을 추진한다. 끝으로, KFPP가 민간 전문업체와 협력관계(PPP)를 유지하면서 행복기숙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발표 I 지정토론

「대학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 대책」에 관한 의견

황희준 한국교육시설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교수

MEMO

MEMO

MEMO

MEMO

주제발표 I 지정토론



안전 컨설팅과 내부 프로그램의 필요성

박미랑 한남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I
지정토론

안전 컨설팅과 내부 프로그램의 필요성

박미랑 한남대학교 교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대학공간의 역할의 변화와 조직의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도 변화하지 않는 것은 대학공간의 안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낙두리를 풀어 놓고 있을 즈음, 대학의 안전을 이야기하는 포럼에 토론 제의를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발표문을 읽었다. 대학 공간을 논하는 접근 방식을 거시적으로 그리고 매우 미시적 제도까지 논하고 있는 발표문이라 구체적 아이디어만 더욱 추가된다면 좋은 제안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 공간의 이용자 변화는 외부인의 유입을 부정할 수 없게 한다. 불특정다수의 공간 사용자는 human scale 기준¹⁾에 의해 항상 소외되는 사람과 공간을 낳는다. 그리고 이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의 동기화된 범죄자, 취약한 피해자, 그리고 보호자의 부재상황을 증가시켜 범죄기회로 연결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는 다시 대학공간의 범죄는 내부인과 외부인 모두에 의해 발생하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토론자는 CPTED²⁾의 공공 디자인적 기여와 범죄두려움의 감소효과를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공간의 안전을 이야기할 때 유행처럼 번져있는 CPTED 전략에 대한 맹신을 걱정하고 있다. 접근통제(access control), 자연감시(natural surveillance), 영역성(territoriality), 유지관리(maintenance) 그리고 활동장려(activity support)라는 기본 5개의 원리를 조립식으로 활용하는 CPTED는 매우 쉽고, 장소적 특성 고려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조합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나, 한국에서 CPTED 전략으로 대표되는 전략은 접근통제와 감시, 그리고 감시 중에서도 기계적 감시에 치우쳐져 있다. 발표문에서도 기숙사에 CCTV 내용이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대학 공간의 안전을 이야기하고 CPTED를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

1) 100가구, 300명의 사람, 그리고 3000명의 학생기준.

2)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의 약자로, 셉테드/셉티드라 읽으며 한국말로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 칭한다.

은 현재 대학 공간의 안전상태 진단이다. 대학에서 발생한 범죄들을 분석해야하고, 안전사고의 문제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한다. 대학의 공간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학교 구성원의 이용 패턴, 학교 경비원과 외부 보안업체 등 학교 안전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분석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유해 환경에 노출된 학교의 실태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한계점도 인지해야한다. 그 다음에야 우리는 대학교의 안전을 위한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는 기성품처럼 적용되고 있지만, Newman에 의한 Five Oaks 지역은 공간의 문제점, 공간의 특성, 그리고 사용자들 분석이 선행된 상태에서 적용된 CPTED 전략의 성공을 보여주는 예이다.³⁾

대학 캠퍼스가 겪는 범죄현상을 이야기 할 때, 우리는 강력범죄 카테고리에서 절도와 성범죄를 빠뜨릴 수 없다. 그리고 절도의 경우 내부인의 문제는 물론, 외부인의 이용 증대로 인한 접근 가능성이 범죄기회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상황도 부정할 수 없다. 서울의 모 사립대학교의 경우, 24시간 개방되는 열람실에 외부인 차단 조치가 없었던 관계로 열람실 앞의 사물함이 모두 뜯기고 도난당했던 사건이 있었다. 대학 환경의 변화로 단순한 전업학생(full time student)들만의 공간이 아닌 캠퍼스가 당연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환경일수록 우리는 특정 공간 사용이 허락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 하는 접근 통제 시스템을 가져야한다. 각 건물마다 허용된 사용자만이 정해진 시간대에만 출입이 가능한 구조가 그러하다. 발표자는 대학 공간이 “접근 통제” 전략 적용이 어려운 곳이라 하였지만, 토론자는 외부인에게 개방된 공간일수록, 외부인을 구분해내는 접근 통제 전략은 세련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첨언하고 싶다. 이는 캠퍼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건물과 강의실 등의 출입 제한 조치를 의미하고, 도서관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외부인들의 사용 경로를 따로 지정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기숙사의 경우는 더더욱 접근 통제 전략이 엄격해야할 것이다. 더욱이 기숙사를 이야기할 때 내·외부인에 의한 절도 뿐만 아니라 성범죄 문제는 또 다른 접근방식으로 논해봐야 할 것이다. 기숙사의 물리적인 환경(physical environment)의 변화를 통해 범죄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대학과 기숙사가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책임·운영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학시설의 민간 자본의 참여로 인해 그 운영 방식이 BTL이건 BTO이건 캠퍼스의 안전은 학교의 책임이고 학교가 범죄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량인원을 수

3) 1991년 Newman 에 의해 진행된 오하이오(Ohio) Dayton 지역의 Five Oaks project 는 그 지역의 마약문제, 높은 범죄 두려움, 무관심, 높은 월세이주자 비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자 진행된 프로젝트로 CPTED 원칙을 적용하였고, 그 지역 문제점에 특화하여 지역 소유의식 증대, Gate 설치, 주택단지 배치 변경, 주민참여 (Top-down 형식에서 벗어남), 지역사회 교육 등의 전략을 범죄 및 일탈 행위 비율을 감소시킨 CPTED 전략 도입의 성공사례로 여겨진다.

용하는 시설로서의 기숙사의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은 물론 학교에서 숙식을 담당하는 장소로 안전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방문자를 구분하는 시스템은 물론 내부인들의 안전 관련 교육은 물론 활동장려 프로그램, 그리고 범죄발생시 대응방안까지도 기숙사는 마련·운영해야 할 것이다. 강간과 강제추행의 실질적 성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데이트 강간포함)을 교육하는 미국의 1학년 대상 기숙사 교육 프로그램이 그러한 예를 보여준다. 기숙사는 ‘접근 통제’라는 기본 전략 하에 내부인의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다양화 전략이 필요하다. 활동장려를 통해 내·외부인을 자연스럽게 구분해 내고, 내부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하는 프로토콜이 섬세하게 마련되어야 대학교 기숙사 안전이 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숙사의 안전에 있어서 CCTV 설치의 해법이 아니다. CCTV 설치 비용은 큰 비용이 아니라 치더라도, CCTV 모니터링 권한자와 이들의 교육, 이들의 역할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싶지만 유럽의 경험들은 CCTV의 인권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든다.

대학 캠퍼스는 안전해야 한다. 매우 기초적인 이야기이지만 매슬로우의 말처럼 우리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욕구로의 이동이 가능한 존재이다. 미국 건축가 협회는 물론 교육부에서는 학교의 실질적 기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습역량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디자인이 안전과 결합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젊음의 에너지가 있는 낮 시간의 캠퍼스도 다양한 안전 문제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숙소로서의 캠퍼스는 더더욱 범죄와 안전으로부터 까다로운 제도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까? 교육부의 대학 평가 기준이 취업률과 충원률이 아닌 공간 사용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에 관한 감독 기준이 강화되면 가능할까? 아니면 캠퍼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경험이 그러했듯이) 치안과 관련한 경찰, 안전행정부, 그리고 우리의 법제의 문제로 부각되어야 할까?

설사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공감되어 실제 캠퍼스의 변화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토론자는 앞서 지적한 대로 기성품처럼 팔려나가는 캠퍼스 혹은 기숙사 CPTED 전략이 아닌 충분한 컨설팅이 전제된 비용대비 효율성을 지닌 안전 전략이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Newman, O. (1969). *Physical Parameter of Defensible Space, Past Experience, and Hypothes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Newman, O. (1996). *Defensible Space: Deterring Crime and Building Community*. (<http://www.huduser.org/publications/pdf/def.pdf> 최종접근 2014년 6월 29일).
- Saville, G. (1996). The diagnosis of before the prescription. *Problem Solving Quarterly*. 9(1/2). Washington DC.: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Publication.
- Saville, G. & G. Cleveland (1998). *2nd Generation CPTED: An antidote to Social Y2K Virus of Urban Design*. paper presented to the 3rd International CPTED Association Conference, Washington, DC: 14-16 December



주제발표Ⅱ 지정토론

**「교육과 주거의 통합방안 모색 :
기숙형 대학(RC)」에 관한 의견**

강대진 전국대학교생활관관리자협의회 서울지부장

주제발표Ⅱ
지정토론「교육과 주거의 통합방안 모색 : 기숙형 대학(RC)」에
관한 의견

강대진 전국대학교생활관관리자협의회 서울지부장

1. 기숙사의 개념변화

2000년 이전에는 대학 기숙사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기숙사비 또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대학의 증가와 대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기숙사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게 되었다. 기숙사는 대학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단순히 숙박의 공간을 뛰어넘어 다양한 국적과 유형의 학생들이 모여 여가와 학습, 그리고 문화와 정보교류의 장이 되는 이른바 복합적 기능을 하고 있다.

기숙사는 이미 숙박과 숙식의 개념에서 생활관과 문화관, 학습과 여가생활을 겸하는 멀티복합공간과 창업을 준비하는 창조관과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관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가는 중에 있다. 선진국의 대학들은 이미 기숙사(Dormitory)라는 용어대신 레지던스(Residence)라는 용어로 대체하며 집단수용소와 같은 느낌을 탈피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공간으로 1970-80년대 무렵부터 바꾸었다. 레지던스는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RC(Residential Collage)라는 기숙형 대학이란 명칭으로 기숙사에 공동체교육과 창의력 신장, 그리고 기존교육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프로젝트 교육을 2011년부터 도입하여 연대, 서울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동국대, 서울여대 등 많은 대학들이 시도하고 있다. RC형 캠퍼스란 영국과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유래한 것으로 학생이 교수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며 교과목은 물론 인성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주대에서는 기숙사 학생을 슈퍼스타로 표현하고 있으며, 세종대에서는 기숙사 학생들을 위대한 세종의 후예라고 부르며 자부심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1〉 기숙사 개념의 변화

시대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1970년대	지방의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집단숙박소 개념(Dormitory)	단순 숙박위주의 개념 고교 기숙사와 차이 없음
1980년대	중대형 기숙사의 등장 선배가 후배를 키우는 공간	원룸 3~4명 다수, 2인실 증가
1990년대	다양한 편의시설/부대시설	대형 및 고층 기숙사 형태 등장
2000년대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복잡화 생활관으로의 명칭사용	제공시설의 다양화, 민간자본투자, BTO의 등장, 고급리 기숙사
2010년대	반값기숙사, 기숙형 대학, 선진국형 기숙문화, 대학경쟁력의 중요한 시설	직영, 민영, 공공기숙사 등장 RC개념의 선진국형 기숙사문화도입

〈표 2〉 기숙사 학생의 명칭 변화

익사생	기숙사학생(사생)	생활관생	슈퍼스타, 세종의 후예들
1950년대 이전	1990년대 이전	2000년대	2010년대

2. 기숙사의 증가와 RC의 대두

많은 대학에서 대학 경쟁력 향상의 일환으로 기숙사 기존 시설의 개선, 증축 및 신축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행복(공공)기숙사와 에듀21 지원 사업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인증정책, 대학기관인증 평가에서 기숙사 수용률 반영과 같은 정부의 정책들을 기반으로 기숙사의 시설과 수용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존 기숙사의 증가는 대량생산과 대량공급의 건축물과 H/W의 증가만을 가져 왔지만 RC는 기숙사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기숙사는 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숙박, 문화교류, 정보 전달 및 스포츠, 레저, 학습과 창업, 비즈니스 등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동체의 역할로 하나의 도시와 같은 역할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치관의 형성을 위한 교육공간과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의 복합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본부의 기숙사 지원과 관심으로 기숙사는 더 이상 잠자는 공간만이 아닌 문화생활과 여가생활, 대학생활을 의미 있고 보람차게 지낼 수 있는 창조적 공

간으로 바뀌고 있다.

다행히 일부 선진대학들이 해외의 사례를 연구하여 국내에 적용하면서 기숙사를 학습과 주거의 통합시설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특히나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동대의 교육성 공사례가 많은 대학에 전파되어 기숙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 한동대 졸업생들이 기업과 사회로부터 급격한 칭찬과 관심을 받으며 경쟁력 있는 선도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학생전원이 교수들과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학습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사회봉사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개인주의적이고 사회성이 약한 학생들에게 창조경제의 시대에 맞는 혁신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획일적 강의식 교육과정을 벗어나 다양한 비교과과정을 진행하여 기숙사를 숙박뿐 아니라 교육과 주거가 통합된 2부 대학으로 기숙사를 상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국대는 신입생에게 기숙사에 생활하게 하면서 정규 교육과정으로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교양기초교육과 학생들의 발달주기에 맞춘 역량개발과 관리를 위한 학사지도 교수제와 함께 RC교육으로 참사람 인재라는 바라밀다를 육성하고 있다.

3. 전국대학교생활관관리자협의회 세미나 주제는 RC

지난 5월 28일 전국대학교생활관관리자협의회의 150여개 대학기숙사 관리자들이 이화여대 생활관 RC 프로그램을 중심으로한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강사인 이대 생활관의 이덕규 부관장은 대학에서 RC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CA(Residential Collage Assistant)라고 하는 선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대학 선배들이 교수의 역할과는 다른 학습과 공동체, 프로젝트의 역할을 통해 소속감과 애교심을 심어주고 학습에 대한 목적과 미래 인생에 대한 방향을 토론하고 동고동락했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추진배경으로는 학생들 간의 소외감과 익명성의 증대로 학생들의 협동심과 연대감이 부족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추진력의 한계로 대학의 의미와 보람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똑똑한 인재보다 성품이 바르며 공동체를 생각하는 인성교육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미래형 인재인 창의적 인재, 봉사형 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며,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 우수한 교수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되지 못하는 점이 RC의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RC 프로그램을 도입한 백미는 해외의 선진기숙형 대학들을 대학본부의 경영진이 전학을 간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 수백 명이 학생들이 지원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고 견학비용 전체를 학교의 지원으로 다녀왔다고 한다. 학생들은 지도교수와 함께 전세계 대학의 기숙사를 방문하여 시설을 보고, 외국인 학생들과 대화하며, RC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통과가 되었다고 하니 학교마다 지원의 정도가 다르니 쉽게 접근 할 사항은 아니다.

이화여대 김 처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캠퍼스 내 학습·생활·나눔 공동체 레지덴셜 칼리지인 ‘이화 RC’ 시스템으로 선진교육 인프라를 확충했다”고 강조했다.

〈2014. 6. 28 한국경제〉

RC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학본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있어야 하며, 거교적 노력으로 가능한 모델이다. 대학경영자들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숙사 관리부서만의 열정과 힘만으로는 애초부터 실현하기 벅찬 프로그램이다. 다만, 현재 기숙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4. RC 연구 보고서의 아쉬운 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기숙사는 성균관대의 양현재로 600년 되었다. 선배와 후배간의 방장과 방졸이 존재하여 상호 존중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윤동주 시인은 1938~1941년 재학 연세대 기숙사에서 머물렀다. 대학 기숙사의 역사와 문화가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도 제대로 된 연구와 분석이 부족했다. 또한 많은 대학에서 RC의 맹아적 형태로 운영되며 기숙사의 자치문화와 자율교육을 이끌어 왔던 기존의 기숙사 학생자치회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기존 기숙사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조사가 부족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계명대의 경우에는 장학과 취업지원과 담당이 기숙사 담당으로 전보되어 기숙사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응용시켜 좋은 반응을 얻은 사례도 있다.

해외의 사례도 좋지만 온고지신이라고 국내에서 과거의 선배들이 신입생 교육을 담당해 왔던 교양기초교육인 철학, 역사, 정치경제학, 현실정치 이슈 분석 등의 학습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사회현실을 인식하고 지식인으로서의 교양을 쌓아갔던 자유대학과 방중대학의 모습도 살펴보면 좋았을 것이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이 가속화 되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선후배 모두가 경쟁자이자 취업하지 못하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대

학은 낭만과 지적투혼을 잃어버렸다. 혁명가와 예술가, 그리고 사업가를 꿈꾸었던 선배들의 도전이 후배들에게 계승되지 못하고 자율과 자치의 문화가 소멸되었다는 점도 대학이 활력을 잃고 사회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는 점도 꼽고 싶다.

대학교육의 새로운 대안모델로 보며 유행처럼 번지는 RC는 연세대, 이화여대, 서울여대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나 오히려 한동대의 기숙사 모델과 동국대의 경우 파라미타칼리지(PARAMITA College)를 연구와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5. RC 연구의 보완해야 할 점

대학주도의 RC 프로그램의 한계는 비용이 많이 투입되면서도 효과적인 결과의 측정이 아작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비용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투자하면서도 대량으로 늘어난 기숙사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의 요구를 먼저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 대안마련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적립금과 예산이 많은 대학에서는 실험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그마저도 캠퍼스의 교지의 면적과 기숙사 건물의 한계로 인해 대학별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모델이 RC라 할 수 있다. 기숙사의 대량공급은 많은 학생들의 문화적 요구 증가를 가져왔으며 기숙사 공간의 개념적 변화에 걸맞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공공기숙사는 염가의 기숙사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공간만 허용하는 바람에 친구를 초대하여 커피한잔 나눌 공간의 여유가 아쉬운 상황이다. RC만 특별하게 별도의 건축기준과 지원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직영, 민영, 공공기숙사에서든 현재의 시설과 조건을 활용하여 RC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대학에서 진행하는 기숙사의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은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여 전파하고 새로운 혁신 프로그램은 심사를 통해 특성화 사업의 한 분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잘 하는 대학은 지원 없이도 그냥 놔둬도 잘한다. 하고 싶지만 예산과 인력의 여건이 안 되는 대학은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효과를 측정하여 시행착오를 보완할 수 있어 사후 관리가 되는 모델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학생이 함께 하는 글로벌 RC 프로그램도 적용되면 좋을 것이다. 이미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별로 수천에서 수백에 이르며 이들과 함께 언어와 문화교류를 한다면 외국

어 실력과 함께 글로벌 마인드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 RC 프로그램이 지역의 봉사와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의 기능이 교육, 연구, 봉사라고 할 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기획과 진행은 무엇보다 인성교육에 필요할 것이다. 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봉사활동을 조직하는 일, 창조적인 도전을 기획하는 일 등에 교육, 문화, 자치, 축제 프로그램의 대명사로 RC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학교주도의 교육혁신 모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학생들의 자치와 자율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RC는 기숙형 대학뿐 아니라 자족과 자치의 문화가 형성되어 하나의 교육타운과 교육도시(에듀시티) 대학안에 계획도시로 만들어 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에듀타운과 에듀시티 역할로 확장해 가야 한다. 대학별로 RC와 관련된 창의적 도전이 계속 되어야 한다.

얼마 전 몬스터 대학교라는 애니메이션에 봤는데 대학기숙사가 등장하여 반갑고 놀란 적이 있었다. 저렇게 멋진 기숙사가 대학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며 캠퍼스 전체를 내려 다 보게 설계가 되어 있었다. 겹주기 특성화 대학인 몬스터 대학은 훌륭한 기숙사의 주거환경과 대학의 특성화에 맞는 겹주기 경주라는 학생 자치와 축제 문화를 갖고 있었다. 수십 년 전에 겹주기 경주를 학생 때 만든 사람이 현 학장이었다. 학생이 참관하며 겹주기 챔피언을 뽑는데 야밤에 학생들이 개발한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은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 대학의 강의와 기숙사의 자치문화, 축제 문화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공동체의 질서와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것을 보며 RC에 대한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발표Ⅱ 지정토론

한동의 ‘팀 기반 RC 제도’를 통해 바라본 한국형 RC의 지향점

전향록 한동대학교 생활관자치회장

주제발표Ⅱ
지정토론**한동의 '팀 기반 RC 제도'를 통해 바라본
한국형 RC의 지향점**

전향록 한동대학교 생활관자치회장

1. 한동대학교 RC 제도의 도입

한동대학교 생활관은 개교 초부터 '팀 중심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사랑과 겸손과 봉사를 배우고 실천하는 기독교 인성 교육의 장'이라는 전인 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생활 공동체를 추구했다. 그러나 최근 학생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존의 3,200명 단위의 생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관장 및 간사 중심 운영에 한계가 있었고, 350~500명 단위의 생활관 동을 구성으로 하는 '한동 RC'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한동의 RC는 2011년 3월, 1개 생활관 시범 운영으로 시작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이제는 전체 교수와 학생 전원이 6개의 RC에 소속되어 팀, 생활관, 교목실이 연계한 통합적인 인성, 영성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2. 한동대학교 RC 제도의 운영 : 팀 문화에 기반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한동대학교는 개교 당시부터 시작된 팀 제도라는 독특한 토양 위에 RC제도를 도입하였다. 팀 제도는 각기 다른 전공에 속해 있는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 30여명이 팀 교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성과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 팀 위주로 생활관에 거주하며 함께 여러 활동들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팀 제도에서 교수님들은 부모와 같은 역할을, 선후배는 형제, 자매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과도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한동의 6개의 RC는 이러한 10~20개의 팀을 하나의 '마을'로 묶어, 소속된 10~20명의 교수와 350~500명 단위의 학생, 그리고 각 RC별 목회자와 생활관 간사를 포함하여 각각의 생활관

동을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RC별로 모인 팀 담임 교수들은 Headmaster를 선출하고, 학생들 역시 RC 학생회를 선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출된 Headmaster와 RC 학생회, 그리고 RC별 목회자와 생활관 간사가 각 RC별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창조해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한다.

한동에서는 이렇게 팀 문화에 기반하여 자발적 참여형 RC의 수립이 가능했다. 학생들은 팀 단위로 스스로 만형, 만언니 역할을 할 팀장/부팀장을 선출하고, 새내기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새내기 섬김이'로 자원한다. RC 도입 이후, 이들은 각 RC 학생회와 함께 RC별 자치 활동에 있어 학생들을 통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해주었고, 이로 인해 RC제도 하에서 모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3. 한동대학교 RC 제도의 독창성 : 교수님은 '스승'이다

한동대학교의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헌신적이라는 사실은 유명하다. 팀 담임제로부터 시작하여 학생의 진로 고민과 가정 문제를 상담하고, 팀 프로젝트 활동을 지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의 방향성 등 가치의 문제, 신입생 멘토링 방법, 생활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토론하며 함께 고민한다.

학생들의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각 팀 담임 교수들은 정체성, 비전, 생활 등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가족 역할 속에 맺어진 실질적 관계에 근거하게 되었으며, 이는 교수들이 교육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넘어 참된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것이 한동 RC에서 참된 의미의 전인교육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강의 실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과 함께 하며 지혜를 배우고 삶의 방식을 본받는다.

4. 한국형 RC의 지향점에 대한 고찰

한동의 RC제도가 교수와 학생의 공동 참여에 기반한 팀 제도 문화로부터 시작하여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 그리고 교수 역시 학생과 적극적으로 관계 맺으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RC 생활관은 팀 단위의 Peer Tutoring의 개념을 넘어 교수들의 부모 역할을 통한 전인교육의 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부분

들이 한국형 RC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특히, 참된 스승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역할이 RC제도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많은 대학에서 교수들이 단순한 교육서비스 제공자로 인식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는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실질적인 관계, 그리고 삶의 공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바라건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한국 대학에서 다시금 회복되어, 성공적인 한국형 RC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참된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한국 사회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제발표Ⅲ 지정토론



대학 공동기숙사에 관한 건축적 제안

이정규 배재대학교 교수

주제발표Ⅲ
지정토론

대학 공동기숙사에 관한 건축적 제안

이정규 배재대학교 교수

1. 기숙사와 공동기숙사

기숙사라 함은 “가정을 떠난 청소년의 교육 또는 후생을 목적으로 한 공동생활시설”이라 풀이된다. 중세 유럽의 수도원과 대학·중등학교에 마련된 것이 기숙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에서의 학숙(學塾, 글방 숙)은 집에 설치한 학교를 말하며 중국의 공자 시대부터 문헌에 나타나며 한국은 고려시대부터 보이고 있다.

모든 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하는 학교를 특별히 기숙학교라고 하는데, 영국의 퍼블릭스쿨(public school), 프랑스의 리세(lycée)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경우 주로 일반대학과 특수학교·벽지학교 등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통학생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기숙사생활은 하숙에 비해 편리하고 경비도 저렴하며, 규율 있는 생활 습관과 공동성·자주성이 배양되고, 학습의 효과도 기대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상 의의가 크고 오히려 학교교육의 주체를 이룬다고도 할 수 있으나, 학교교육의 양적 확대로 우선순위 상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점으로는 장소·설비·환경 등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 관리방침이나 기구(機構)의 운영 등이 무질서나 방종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가정적 분위기와 동료의식의 유지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대학교의 기숙사는 캠퍼스 구내에 위치하여 시설된 것이 통념이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 등의 대학교는 캠퍼스의 영역 구분도 불명확한 사례가 많고, 상당수가 대학교 외의 도시 지역에 모든 대학 학생들이 혼합되어 거주하는 기숙사의 사례가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도 각 지방의 서울 유학생을 위한 재정 학숙(학사)이나 지방에서도 광역시에 유학한 농촌지역 학생을 위한 공동 기숙사가 최근에 그 사례를 더 해가고 있다.

대학 공동 기숙사는 “University Cooperative Housing” (housing은 dormitory 차원을 벗

어난다)으로 영어로 표시되며, 줄여서 Co-op라 불린다. 어떤 특정 대학의 캠퍼스 구역 안에 있는 기숙사가 아니라, 인근의 도시 안에 위치하며, 특정 대학교 학생만 배타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대학생도 받아들여 융통성 있고 다문화 커뮤니티를 가지는 기숙사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은 대학 자체의 기숙사가 매우 드물며 오래전부터 이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2. 공동기숙사 사례조사

1) 파리국제대학도시(Cité universitaire de Paris)

(1) 개요와 역사

대학공동기숙사의 개념을 확장하여, 자국의 지역학생 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까지 수용하고 도시계획 차원까지 발전시킨 사례로 주목할 만한 파리 대학도시는, 파리의 도심 남쪽 14 구역에 위치하며 파리 환상 고속도에 접하고 대학이 위치한 각 지역으로부터 전철, 버스가 연결된다. 33ha의 넓은 대지에 40개관이 모인 대학 국제 기숙사이며 1925년 뫼르테 관의 개관을 시작으로 2차 대전 전 21관, 대전 후 19관으로 1969년 이란관의 개관, 그 후 대학도시 외의 구역에 2005년 이후 2관이 개관되었다(일본관 1927년). 외국관은 27개 관, 프랑스 자체 수요는 9개 관, 중앙 관리 성격의 건물 4개관이다. 32개 국적의 20만 학생과 연구원, 예술가, 훈련생이 37개 재단이 설립한 5,600여 베드의 시설에서 90년 동안 살았다. 프랑스 정부가 2011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국제도시 내 부지 2600㎡ (115억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에 2014. 3. 17. 약정을 맺어, 한국관은 250명의 유학생 숙소와 강의실, 세미나실, 전시실, 공연장, 등으로 2015년 말 착공, 2018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 재정과 기증자 : 개인기증은 14건, 정부주도는 11건, 다수의 기부자는 6건, 개인+정부는 3건, 정부+재단은 2건, 기타이다.

(3) 규모 : 브레하관의 12인부터 예술산업관의 692실까지 다양하다. 50실 이하가 6관, 100실 이하가 9개관, 200실 이하가 10개관, 300실 이하 7개관, 400실 이상은 3개관이며, 6개관은 숙실이 없거나 불명이다. 단순 평균으로 150실 정도이다.

(4) 실조합 : 1인실이 2인실보다 비율이 훨씬 크다(농업식량산업관 제외).

(5) 실규모 : 1인실, 2인실의 면적 차이는 크지 않으며, 11㎡~18㎡까지의 범위이며 스튜디오는

16m²~24m²의 범위이나 35m² 까지도 보이고 있다.

(6) **실구성** : 각 개실은 샤워, 변기, 세면대가 구비된 화장실을 대부분 갖추고 있으며 책상, 책장, 침대, 의자, 테이블, 선반, 옷장, 램프 등을 구비하고 냉장고, 전화, 인터넷을 개실마다 장치하여 편리성을 주나 텔레비전을 설치한 곳은 거의 없다.

(7) **공동시설** : 각층에는 공용의 주방, 샤워실, 화장실을 구비하여 층별 거실이 커뮤니케이션을 확장시키고 있다. 보통 지하실에 세탁기, 건조기, 아이언, 컴퓨터실, 데이터 프로세싱실, 복사실, 사진작업실이 있어 학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1층에는 대규모 거실, 개방 또는 간막이 있는 독서실, 공부방, 전시실이 있거나 나라에 따라 대규모의 도서관을 확보하기도 한다. 소수의 관이 중소규모의 식당, 카페테리아, 테라스 바비큐, 페스트리를 두고 있으며, 극장, 예금취급소를 둔 관도 있고, 바나 게임룸, 당구장, 카바레, 디스코테크 등 오락 기능을 적극적으로 갖춘 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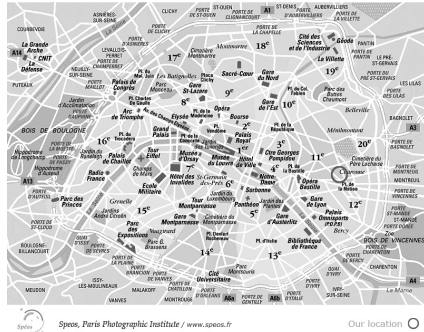
국제관은 중앙의 공동시설로 두 개의 레스토랑(대학 식당, 테라스), 카페테리아, 은행, 전시관, 도서관, 두 개의 극장 등으로 전체 활동의 중심이며, 각층에도 거실과 독서실, 지하에는 수영장과 스포츠홀을 갖추고 있다.

(8) **문화** : 공통적으로 콘서트, 전시, 회의, 토론, 영사, 감상들이 이루어지며 각 나라의 전통축제는 일본, 아프리카, 스웨덴, 노르웨이, 댄스는 아프리카, 노르웨이, 독일 등이며, 재즈는 미국, 아프리카, 그리스, 아프리카, 독일, 멕시코, 스페인은 자국의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많은 행사를 개최한다. 각 관의 계속되는 행사와 국제관의 대규모 행사는 대학도시의 범주를 넘어 파리 시 전체가 주목하고 영향을 받는 주요한 문화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다.

(9) **수용 운용방식** : 외국관과 프랑스 자체관 공히 자국민 50%, 타국인 50%의 공통적인 내부 지침을 가지고 개방적이며 융통성 있게 운용한다. 학생 이외 연구원, 예술가, 교수 등 수용자 격도 다양하며, 장·단기를 혼용하여 학기에 따른 경제성을 살리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방학 중에는 학생, 교수, 일반인의 유료 숙박으로 임대하여 재정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자국 내 여러 지역과 세계에서 온 여러 나라의 대학생들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대학공동기숙사인 동시에 그 규모를 도시계획차원으로 건설한 파리국제대학도시는 유럽에서도 그 예가 드물다. 그 규모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과 글로벌한 인적교류, 도시의 물리적, 문화적 장소성 창조의 명확한 유용성은 현재 한국의 대학생 주거문제와 외국인 유학생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상당한 참조점이 되고 있다.

〈표 1〉 파리국제대학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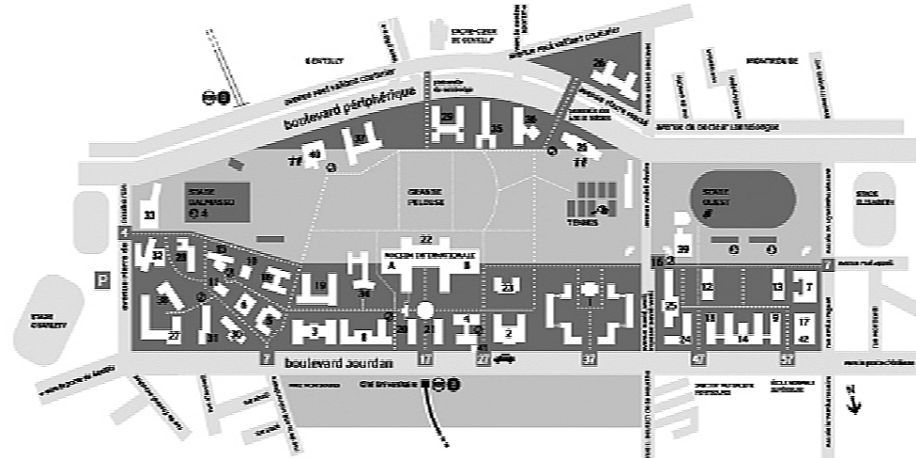


〈파리 구역도와 대지위치〉

— 남부 14구역, 북부 19구역(루아르, 릴라)



〈파리국제대학도시 사진〉



- | | | | | | |
|------------------------------------|------------------------------------|------------------------------------|---------------------------|---------------------------|---------------------------|
| 1.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5. Maison des étudiants américains | 10.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5. Maison internationale | 20. Maison internationale | 25. Maison internationale |
| 2. Maison des étudiants américains | 6.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1.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6. Maison internationale | 21. Maison internationale | 26. Maison internationale |
| 3.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7.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2.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7. Maison internationale | 22. Maison internationale | 27. Maison internationale |
| 4. Maison internationale | 8.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3.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8. Maison internationale | 23. Maison internationale | 28. Maison internationale |
| 5. Maison internationale | 9.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4.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9. Maison internationale | 24. Maison internationale | 29. Maison internationale |
| 6. Maison internationale | 10.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5.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0. Maison internationale | 25. Maison internationale | 30. Maison internationale |
| 7. Maison internationale | 11.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6.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1. Maison internationale | 26. Maison internationale | 31. Maison internationale |
| 8. Maison internationale | 12.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7.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2. Maison internationale | 27. Maison internationale | 32. Maison internationale |
| 9. Maison internationale | 13.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8.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3. Maison internationale | 28. Maison internationale | 33. Maison internationale |
| 10.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4.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9.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4. Maison internationale | 29. Maison internationale | 34. Maison internationale |
| 11.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5.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0.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5. Maison internationale | 30. Maison internationale | 35. Maison internationale |
| 12.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6.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1.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6. Maison internationale | 31. Maison internationale | 36. Maison internationale |
| 13.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7.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2.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7. Maison internationale | 32. Maison internationale | 37. Maison internationale |
| 14.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8.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3.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8. Maison internationale | 33. Maison internationale | 38. Maison internationale |
| 15.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19.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4.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9. Maison internationale | 34. Maison internationale | 39. Maison internationale |
| 16.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0.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5.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0. Maison internationale | 35. Maison internationale | 40. Maison internationale |
| 17.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1.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6.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1. Maison internationale | 36. Maison internationale | |
| 18.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2.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7.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2. Maison internationale | 37. Maison internationale | |
| 19.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3.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8.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3. Maison internationale | 38. Maison internationale | |
| 20.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4.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9.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4. Maison internationale | 39. Maison internationale | |
| 21.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5.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0.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5. Maison internationale | 40. Maison internationale | |
| 22.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6.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1.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23.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7.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2.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24.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8.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3.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25.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29.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4.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26.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0.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5.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27.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1.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6.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28.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2.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7.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29.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3.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8.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30.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4.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9.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31.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5.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40.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32.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6.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 33.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7.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 34.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8.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 35.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39.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 36.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40.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 37.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
| 38.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
| 39.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
| 40. Fondation de la Ville de Paris | | | | | |

〈파리 대학 도시 배치도〉

1. 뫼르테 2. 캐나다 3. 벨기에 4. 아르헨티나 5. 농업관 6. 일본 7. 남동아시아 8. 미국 9. 아르메니아 10. 스웨덴
11. 덴마크 12. 헬레닉 13. 쿠바 14. 프랑스지역 15. 스위스 16. 스페인 17. 네덜란드 18. 모나코 19. 프랑스-영국
20. 로베르 게릭 21. 오노라 22. 국제관 23. 빅토르 리옹 24. 튀니지 25. 루시앙 페이 26. 예술산업 27. 모로코
28. 노르웨이 29. 캄보디아 30. 이탈리아 31. 농업식량산업 32. 브라질 33. 포르투갈 34. 멕시코 35. 독일 36. 이란
37. 레바논 38. 인도 39. 서 체육관 40. 남 체육관



〈브라질관〉



〈스위스관〉

2) 국내 공동 기숙사

가) 재경학사 6개 관

서울과 수도권에 유학한 지방 출신 대학생을 위한 강원학사, 경기도장학관, 충북학사, 전북장학숙, 남도학사(광주·전남), 제주학사 등 6개 지방학사에는 총 2,150명의 지방 출신 대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나) 지방학사 4개 관

지방의 주요 대도시에 집중된 학교에 유학한 인근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경북학숙, 전남학숙, 전주장학숙, 충남학사의 4개 학사에 총 1,136명을 수용하고 있다.

다) 재경과 지방 10개 학사 규모 및 운용

- (1) 개관 : 재경학사는 1989년부터 1994년, 즉 1990년대 전반부에 개관하였다. 제주학사와 지방학사 4개관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개관하였다.
- (2) 재정 : 5개 관은 장학회 재단에 의한 설립, 충북은 소수의 개인 기증, 전북은 지방재정에 기업인과 도민성금, 남도, 제주, 전주는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위주에 도민 성금과 기타 복권수입으로, 근래에 올수록 공공재정이 중심이 되고 있다. 제주는 임대사업 개념의 특징을 보인다.
- (3) 규모 : 충북의 1,278평부터 경기의 2,247평의 규모로 2,000평 전후 범위에 집중되며 지하1층, 지상 4~8층에 비해, 최근의 제주는 4,691평, 남도는 9,855평, 지하3~4층, 지상11층 등

으로 대규모화한다. 수용규모 역시 충청의 220명~전북의 372명으로 300명 전후에 집중되나, 남도는 810명의 대규모를 보인다. 남녀 비율은 대부분 남자가 근소하게 많으나 남도의 경우는 두 배에 이른다. 지방의 경북, 충청은 여학생 배분이 남자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 (4) **실규모** : 숙실면적(1인당 m²)은 충북 5.95, 강원 8.26, 경기 8.26, 남도 9.91, 전북 7.6, 제주 10.9로, 3인 1실인 충북학사는 타 시·도의 평균 숙실면적 8.26m²에 비해 크게 낮다.
- (5) **실구성** : 대부분 2인 1실이며, 3인 1실도 있으나 전북의 청운관은 고시준비 목적의 1인 1실이다. 각 실은 옷장, 책상, 침대, 의자를 갖추며 인터넷은 개실 혹은 공동실에서 한다. 전화, 화장실, 샤워시설은 최근에 건설된 6개 학사는 개실 내에 포함된다. 강원은 5실 당 1거실에 구내전화, 세면대, 화장실, 세탁기가 있으며, 경기는 공동거실 28개실(6개실 당 1실)에서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한다.
- (6) **공동시설** : 남도와 지방학사는 각층에 휴게실, 세탁실을, 제주는 층별 상담실, 도서실, 공용 PC실, 세탁실, 공부방을 갖추고 있다. 전체적으로 로비, 독서실, 컴퓨터실, 주방, 식당, 휴게실, 구내매점, 정수기, 세탁 및 다리미실을 공통으로 하며, 남도는 독서실을 2실, 어학실, 다목적실 2실, 피아노, 자유회실, 동아리실, 동기회실을, 전북은 목상의 방, 자유회실, 소독서실, 동영상 강의실, 세미나실 등 많은 다양한 시설을 구비한 반면, 충북은 샤워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모두 탁구장, 체력단련실을 보유하고, 강원은 그 외에 당구장, 골프연습장, 야외농구장을, 경기는 다목적구장(농구·족구·배구·테니스)과 강당을 갖고 있다. 전주는 야외 독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 (7) **문화** : 모든 학사가 열림제 Open house day와 체육대회, 축제, 동아리 활동, 초청강연, 교양강좌를 하며 6개 학사 체육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강원, 경기, 남도는 유럽배낭여행지원, 해외연수를 지원하며 특히 남도는 해외전문단 활동, 일본홈스테이, 외국인학생 특별입사제도, 외국교환학생 홈스테이 제도와, 스터디 그룹, 심성개발훈련, 퍼스널 리더십 다이어믹스 등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입사생의 취업도 알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은 영어특성화 학숙, 전남은 자격시험과 고시 준비생을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한 무료 교육과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특화된 개념을 보인다.
- (8) **입사자격** : 모든 학사가 자기 도, 시, 군 출신만을 배타적으로 선발하며 선발조건도 까다로워 폐쇄성을 띠고 있다.

3) 파리 대학도시와 국내 학사의 비교

- (1) **개관** : 파리는 1925년 이래의 장기간에 걸친 개관이 이루어진데 비하여, 국내는 1990년대 전후부터 시작되어 역사가 일천하다.
- (2) **재정** : 파리의 경우, 포괄적 개인기증은 23건, 정부주도는 13건으로 분류되며, 개인의 기부는 줄어들고 있고, 정부주도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다. 국내의 경우도 주로 장학재단에 의한 설립이 5개관이며 근래에 올수록 공공재정이 중심이 되고 개인적 기증은 없어지고 있다. 기부문화의 차이이지만 현재의 경향은 똑같이 공공재정 중심으로 가고 있다.
- (3) **규모** : 파리는 12인부터 692실까지 다양하며 평균 150실이다. 국내는 200~300명 수용이 대부분이나 810명 수용의 대규모도 있다. 파리와 개실 수는 비슷하나 프라이버시의 문제 여지가 있다.
- (4) **실규모** : 기본 개실 면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이는 기능에 충실한 최소면적 기준이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인당 면적은 파리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 (5) **실구성** : 파리는 1인실이 2인실보다 비율이 훨씬 크나 국내는 2인 1실이 절대 다수를 점한다. 이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효율의 현실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스튜디오나 아파트 형식이 거의 없는 사실 또한 국내 기숙사의 다양성의 부족을 드러낸다. 공통적으로 개실에 화장실을 대부분 갖추고 있는데 반해 90년대 초반의 국내는 실내에 없었다. 공통적으로 기본 가구와 전화, 인터넷을 개실마다 장치하여 편리성을 갖춘다.
- (6) **공동시설** : 파리는 각층에 공용의 주방, 샤워실, 화장실, 또는 거실을 구비하여 개실의 공간과 기능 부족을 보완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근래의 숙소는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며, 강원과 경기학사는 5~6실 당 1거실에 공용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있다.
세탁실, 컴퓨터실, 로비, 독서실, 주방, 식당, 휴게실, 구내매점 등은 공통적이거나, 피아노실, 음악스튜디오, 예술가공방 등 특화 시설, 극장, 예금취급소, 바나 게임룸, 카바레, 디스코텍 등 오락 기능 등은 국내에는 없다. 체육실과 실내탁구장도 공통적이거나 좀 더 대규모의 수영장이나 옥외 운동장은 없다.
- (7) **문화** : 파리의 경우 대규모 시설이 모여 있는 만큼 다채롭고 대규모의 문화 행사가 이루어져 지역 사회에 까지 영향을 주는 반면, 국내는 축제와 체육행사 등의 자체 행사에 머무른다. 반면 학생을 위한 동아리활동, 교양강좌가 주를 이루며 장학제도나 외국 여행의 보조 등 수혜적인 제도가 있는 특징이 있다.

- (8) 수용형태 : 파리의 경우 고유의 외국관이나 프랑스 지역관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적의 학생을 적극적으로 혼용하는데 반해 국내는 설립주체의 출신 학생만 수용하는 배타성을 보인다. 이 경우 다양한 인간적, 문화적 교류가 어려운 단점을 노출하게 된다. 또한 파리의 경우 연구자, 교수, 예술가, 훈련원 등도 수용하여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하고, 단기 체류도 가능하여 융통성과 총체적인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반해, 국내는 학생에만 국한시켜 개방성이 부족한 단순성을 보이며, 고시생을 위한 숙소의 경우는 매우 한국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3. 재정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건축적 제안

시설과 관리 주체의 사업에 동반되는 사업방식, 건설과 관리, 운영에 따른 법적, 세법 등 측면에 부가하여, 위에서 거론한 사례에서 도출되는 건축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 공익재단의 재정과 관리가 중심이 되어 국민, 특히 대학생 청년층에 대한 복지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 2)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수 대학과의 교통거리 및 시간을 고려한 도시의 일정 구역을 대학공동기숙사로 지역, 지구 상 용도화 하도록 추진한다.
- 3) 가능한 중·대규모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리적 면적을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신도시, 택지개발구역의 일정 부분을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결정되도록 추진한다.
- 4) 지방의 유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혼합 수용하여 개방적이고 다문화적인 커뮤니티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다양한 국적의 대학생의 교류를 통한 세계화, 지역화가 지속되는 문화중심지를 지향하는 개념을 창출하여야 한다. 공연장, 도서관, 전시시설 등의 흡인력 있는 문화 시설을 함께 건립하여, 티켓 판매나, 부수되는 식당과 상점 등을 통하여 주거 부문 외의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도록 한다.
- 5) 구체적으로는 소·중·대규모의 다양한 건물로 자유롭게 구성하며, 미래지향적으로 1인 1실을 확대하되, 2인 1실, 스튜디오, 아파트 등 다양한 규모의 개실을 조합하여 융통성을 높인다. 각 실에는 화장실, 가구, 통신을 완비하여 주거의 질을 높이고, 다수의 개실마다 거실을 두어 퍼블릭 기능을 보완하며, 공동시설로는 기존의 생활기능 외에 다양한 학업보조기능, 예술작업실, 대규모 문화시설을 시설하여 문화 센터로서의 도시적 기능으로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6) 수용자도 학생으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학자, 예술인, 문화인까지 대상을 넓히고, 장기, 단기 체류를 혼합하고, 남녀의 구분도 없애고, 특히 5달에 걸치는 방학 기간의 일반 방문객에 대한 개실 임대로 수입을 얻어 총체적인 기숙사비 인하에 기여하도록 경영의 합리화 방안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7) 향후 장기적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생 인구의 감소와 외국 유학생의 감소에 따른 기숙사 수요의 변화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기능 공간을 융통성이 있는 보편적 공간(universal space)이 되도록 계획하고, 경량, 가변적 구조를 채택하여 시대 변화에 적응하며, 궁극적으로 주거, 문화 커뮤니티의 도시적 성격을 가지도록 하여 향후 청산의 가능성에 대비한다.
- 8) 파리 대학도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중국, 몽고, 베트남, 미국, 일본 등에게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 국가 또는 기업이나 다수의 일반인의 자발적인 건축 기증을 바탕으로 개관하게 유도하면서, 각 국가 별로 특유한 건축, 문화 행사,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 흡인 효과를 촉발하면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갖출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적으로 저명한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범세계적인 건축 관계인의 건축답사 유인을 흡수해야 한다.

향후 과제는 교육정책, 도시정책 등 정책과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재정 계획, 법령 개정, 그리고 구체적인 도시계획과 건축계획, 실내건축적인 바람직한 모델의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Ⅲ 지정토론

**「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공공기금
직영기숙사 추진방안」에 관한 의견**

김준석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MEMO

MEMO

MEMO

MEMO